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1982년 10월 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October 6, 1982

OCT 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상)셔터만 연신 눌러대는 사람중에 사진 찍을 생각은 안하고 미녀만 감상하는 총각도 있다.

◆(중)허윤정양과 꼬마모델 이현종양의 우아한 한복자태.

◆(하)7순의 강헌옹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모습.

단풍에 물들은 요염한 모습

7순의 노인을 홀린 한복미녀들

7회 사진대회, 50여 카메라맨 참가

황금빛의 단풍이 저녁노을에 반사되어지는 순간 약간 살이 비칠듯한 엷은 드레스차림의 미녀의 모습에 세뇌당한 카메라맨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찰칵 찰칵 연신 샤터만 눌러댄다.

지난 2일 보이드팍에서 개최된 한국일보·사진협회 공동주최의 7회 사진대회에는 캐나다, 일본인 사진사들을 비롯 교민 아마추어·프로사진사 50여명이 모였다.

가족들까지 나와 단풍을 즐기며 점심을 들은 사진사들은 이날 모델로 나온 미녀들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촬영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전경수사진협회장의 "작품이 카메라의 가격과는 상관없다. 나도 오늘은 20년된 구형카메라를 들고 나왔다"는 인사말처럼 하셀브라드부터 코닥소형카메라까지 동원된 순수아마추어 사진사들을 위한 대회였다.

이날 모델로 나온 82년 미스캐나다진 함승희, 선 박은희, 80년 미스캐나다진 허윤정양의 우아하면서 화사스러운 모습은 보이드팍에 놀러나온 다른 캐네디안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축길사진협회고문(전 한국일보사 사진부장)의 촬영요령과 심사기준설명에 이어 아마추어사진사들은 미녀들의 발길은 따랐다.

상휘씨가 장녀 이현종(9)양을 한복을 입혀 모델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이양의 앙징스럽고도 깜찍스러운 모습은 사진사들의 필림을 더욱 소모시켜 뒤따라갔던 밴추럭의 필림판매원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제3부 드레스촬영에서는 금년도 미스코리아 미 박은희양의 독무대. 엷은 분홍댓빛차림의 드레스를 입은 은희양은 현재 쌓고있는 모델수업대로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 칠순의 이강헌옹의 카메라를 흥분시키기도 했다.

멀리 몬트리얼에서 참가한 미셀·리버노군은 "원더풀! 원더풀을 연발하면서 동양미녀들의 모습이 새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번대회에는 영스트릿 재팬카메라상에서 일하는 아끼가씨와 마세이씨도 참가했다.

대회가 끝난후 심사위원(사진협회 임원)들은 "예년에 보면 미리 겁먹고 출품을 안하나 될수 있으면 꼭 사진을 제출 심사평과 함께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등한명에 니콘카메라등 많은 사진기재가 부상으로 걸려있는 이번 사진대회의 출품마감은 오는 31일이며 본사로 보내면 된다.

새 지하철구간 건설

핀치와 쉬퍼드역 사이

남북을 잇는 영지하철구간의 북쪽끝 핀치역과 쉐퍼드역 사이에 새로운 지하철건설안이 통과됐다.

메트로위원회(Metro Council)은 이 새로운 지하철역 건설을 위한 2천5백만달러를 위원회의 5개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33대4로 가결했다.

온타리오시정위원회(Ontario Municipal Board)가 이 건설안을 지지할경우, 추정부는 소요자금의 75%를 지불하게 된다.

멜·라스트맨 노스·욕시장은 새로운지하철이 노스·욕중심부에 건설됨으로서 노스·욕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캐네디언들도 폭소한 평산탈춤

국립무용단 몬트리얼서 기립박수 받아

(몬트리얼 = 정관성지국장)엷고 우아한 색채의 의상으로 단장한 국립무용단의 부채와 북의 묘기는 1천여명의 몬트리얼 관객을 매료시켰다.

특히 한국말을 잘 모르는 캐네디언들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평산탈춤과 강강수월래, 마지막 순서였던 무용단전원이 출연한 농악은 기립박수를 받았다.

4일과 5일 하오8시 몬트리얼시내 플랏·데·자극장에서 열린 국립무용단의 캐나다 데뷰공연은 초청단체인 그레이트·월드 아티스츠가 광고및 티켓판매조직에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천여명씩의 관객이 동원됐다.

몬트리얼총영사관과 교민단체들은 꽃다발 증정으로 훌륭한 한국의 전통 예술을 소개해 준 국립무용단의 공헌을 치하했다.

캐네디언 친구들에 한국의 예술을 소개해 줄 좋은 기회로 생각, 공연을 보러 왔다는 한 교민은 "한국춤의 극치를 보여 준 공연으로 한국에서 볼 때보다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한 캐네디언 관객은 "동작이 완만한 점이 일본춤과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춤이 훨씬 예술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국립무용단은 6일아침 토론토에 도착 6,7일(수,목) 양일간 토론토에서, 오는 9일(토)에는 오타와의 샤토·로리에 호텔에서 공연한뒤 10일 캐나다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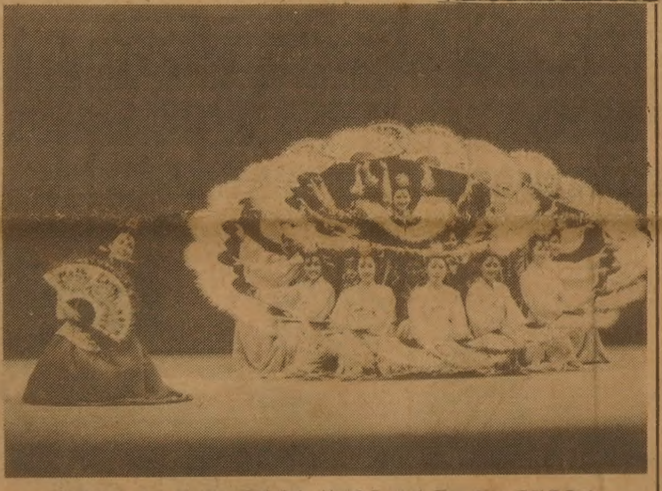
이글톤 시장이 환영멧시지

한인의 날과 국립무용단 맞아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은 10월3일 한인의 날과 때를 같이하여 6일과 7일 토론토에서 공연을 갖는 한국 국립무용단에 환영메시지를 발표했다.

이글톤시장은 이 메시지에서 국립무용단의 높은 예술성이 캐나다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번공연이 캐나다정부가 정한 한인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무용단의 토론토공연은 6,7일 하오8시 라이어슨극장(43 Gerrad St, E.)에서 있으며, 티켓값은 $12.50과 $16.50, 학생과 노인은 $2.50 할인된다. 티켓 전화예약은 595-5088, 공연당일 극장 매표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몬트리얼 플랏·데·자르 극장에서 부채춤을 보여 주고 있는 국립무용단.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만년필 라이타 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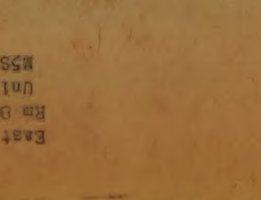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연말 연초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고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정영수태권도 아카데미
공 확장 이전 고
교포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힘입어 강한 육체와 올곧은 정신을 기르는 한편, 전통에 빛나는 모국무도 보급에 정진하고 있는 저희 태권도아카데미는 아래 장소로 확장 이전과 함께 리셉션을 갖고저 하오니 많으신 분들 오셔서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태권사범 정영수 배
리셉션 : 10월16일(토) 저녁 7 시
새주소 : 546A ST. CLAIR AVE. W.
TORONTO
☎ : 652-0000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천연개스비 10% 인상

연방정부 5% 억제정책 무시

온타리오주 정부의 5% 물가인상 동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천연개스비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주정부 당국자는 1일 개스비에 대해 언급, 주정부는 온타리오·에너지국을 통해 천연개스 공급자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지만 내년도 인상 10%는 확실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15%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연개스 공급자 가격이 내년도에 이같이 오를 경우, 온타리오주의 1백만동의 개스난방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그렌·톰슨 에너지차관은 "개스비가 오르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무어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온타리오의 가격결정권은 이제 한계에 와있다"고 실토했다.

천연개스 가격은 서부에서 온타리오에 도착하기 전에 알버타에서 책정한 도매율과 트랜스캐나다(Trans Canada)의 파이프선을 통한 운송비용과 2가지의 연방정부 물품세가 포함된다.

알버타주는 오타와 연방정부와 지난해 합의한 가격동결에 따르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방정부는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통제 가능 산업에 대해 6%로 물가인상을 제한하기로 한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11월1일부터 트랜스캐나다의 수송료를 14% 올려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톰슨 차관은 이날 개스산업 관계자회의에서 "온타리오의 개스 소비자들은 내년에 이러한 불가피한 요소들 때문에 적어도 10%는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온타리오의 유티리티·코스트를 추가하게 되면 그 이상이 오를 것같다'고 밝혔다.

주택보조 연장 입주일 늦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주정부보조금의 5천달러의 수혜규정이 다소 완화될것 같다.

크라우드·베네토온타리오 주택장관은 신규주택구입자가 금년말까지 주택을 구입하고 내년 4월말까지 입주하게 될 경우 무이자로 최고 5천달러까지 융자해 주기로 한 규정을 일부 완화, 입주일을 1개월 내지 2개월 연장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15일 개업 서울식품해밀톤지점

서울식품 해밀톤지점의 개업이 준비관계로 이달 15일로 연기됐다.

15일이전까지는 토론토 서부지점(243-9544)으로 주문하면 배달이 가능하다.

결혼축하

신랑: 김회관군(윤귀순여사 2남)
신부: 이정순양(김경희여사 5녀)
때: 9일(토) 상오11시
곳: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W.)
주례: 이상철 목사
피로연: 교회 친교실

마니토바한글학교 새교장에 김윤덕씨

(위니펙 = 김복연지국장) 마니토바 한글학교(교장 김윤덕)가 지난 26일 새학기를 개강했다.

지금까지 한학급으로 이루어졌던 마니토바 한글학교는 이번학기부터 영어반을 신설했다.

지난9월10일의 총회에서 박영수, 오재기, 박영효, 아하영, 김원겸, 박종수씨를 이사로
학부형대표로 이인자씨를 선출한 마니토바 한글학교는 17일 있은 첫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박영수씨를 새 교장으로 김윤덕박사(의대부속병원 생화학연구원), 총무·회계에 한송자씨를 임명했다.

김윤덕교장은 김원겸 전 교장의 부인이다.

—한인의 날 기념행사—

인종차별과 여성문제 심포지엄

(몬트리얼 = 조미래부장·정관성지국장)한인총연합회(회장 오기송)가 주최한 한인의 날 기념행사 제2부 심포지엄은 2일 아침9시부터 하오5시까지 몬트리얼 시내 마운트·로열 호텔에서 한인총연합회 전국 각 지역대표 30여명과 몬트리얼 교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됐다.

참석자들의 진지한 열의에도 불구, 큰 성과를 못거둔 것으로 평가된 한인이민여성문제를 비롯, 인종차별문제, 국제결혼의 시비를 다룬 심포지엄은 발표자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계속됐다.

첫째, 종족 차별문제 논의는 김원겸 박사(위니펙·생물학) 사회로 김보경(토론토·심리학)박사의 〈종족차별: 기원, 표현, 대책〉, 김종만(벵쿠버)변호사의 〈종족관계에 대한 정부정책〉, 그리고 이유식 연합회 부회장(벵쿠버)의 〈인종차별과 한국교포〉로 진행됐다.

이규현 대사가 제공한 점심식사에 이은 두번째 〈새 캐네디언으로서의 한국여성〉 논의는 김봉환(위니펙·경제학)박사의 사회로 장영식(뉴욕 주립대·경제학)박사의 〈한국여성과 직업전선〉, 홍신웅(토론토·신학)박사의 〈제2세 육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그리고 정회수(몬트리얼대·도시경제학)박사와 Mrs.Miller(경제학교수)의 〈국제결혼의 시비〉로 엮어졌다.

"언어극복은 기본수단 차별이 아니라 탈락"

인종차별의 기원및 표현을 고찰한 김보경박사는 인종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 타민족과의 교류의 기회를 넓혀 편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없애고, (2) 사회제도적인 차별은 정치적 힘을 키움으로써 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만변호사는 인종차별을 받지않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1)캐나다의 인권옹호법을 잘 이해하고 2)정치적여론을 조성, 법을 보강시켜 권익을 증대하며 3)이러기위해서는 한인끼리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 김보경박사는 언어장애로 인한 차별대우는 차별이라기보다 경쟁에서의 탈락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석(뉴욕주립대교수·경제학)박사는 "한국여성과 직업전선"이라는 주제로 홍신웅박사는 "제2세 육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으나 모두 짧은 준비기간 탓인지 제목과 발표내용의 초점이 엇갈려 이민여성의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이민자및 혹은 2세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다루어져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의 불만을 샀다.

이날 참석자중의 한 사람인 토론토의 유회자박사(음악·싸알한국인학교 교장)는 "여성문제 심포지엄에서 여성문제를 다룰 전문가나 자료가 없음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회수 박사

"국제결혼도 마찬가지 기본태도가 성패좌우"

이날 심포지엄중 가장 큰 관심과 열기를 띤 주제는 "국제 결혼의 시비"로 프랑스계 캐네디언과 결혼 경험이 있는 정회수박사(도시 경제학·패백대교수)와 한국여성으로 영국계 캐네디언과 결혼한 Mrs. Miller(패벡대 경영학교수)의 경험담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타민족과의 국제결혼은 근본적으로 동일민족과의 결혼과 큰 차이가 없다.(실패의 원인은 "타민족간의결혼" 이어서라기보다 "결혼에 대한 근본자세"에서 문제가 있어서라고 본다) 즉 결혼이란 상호 성장을 도와가는 협조의 과정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통하는 것이 성공의 첩경이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자기가 누군가 정확히 알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한다"고 결론지었다.

◆Mrs. Miller

특히 정회수박사는 국제결혼은 언어문제, 가족친지로 부터의 고립, 문화배경의 상치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경험의 수평선이 넓어져 인간으로서 보다 풍부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신의 결혼실패는 타민족과의 결혼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성공적인 결혼의 전제조건은 서로 여러점에서 통해야 하며, 문화·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며, 희생이 아니라 사호성장을 돕는 관계여야 하며, 서로 양심의 부담을 주지않는 자유스런 관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5계절

마음이 우울할 때

이 필 주 (토론토순복음교회 목사)

◆이필주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누구에게나 걸리기 쉬운 병마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다. 더우기 그 어느때보다도 생존경쟁이 치열하여 살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병든 문화와 기계문명등 잡다한 현상으로 생기는 신경과민등으로 우울증이 극심한 때이다.

흔히들 암병이나 심장병 같은 것만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이에 못지 않게 무서운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이일 저일로 인하여 생기는 이 우울증은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비극의 함정으로 몰아넣을 때가 수없이 많다.

실례로, 이 우울증 때문에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작가로서 유명한 어네스트·헤밍웨이이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등의 소설을 쓴 작가로 명성과 부를 얻어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한 우울증으로 61년도에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쏘아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쳤다.

이 사람의 아버지 역시 우울증으로 머리에 권총을 쏘아 자살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네스트·헤밍웨이의 동생인 레이세스터·헤밍웨이도 역시 작가로서 지난 9월13일 마이애미 비치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아버지와, 형과 똑같이 머리에다 권총을 쏴 자살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 비극의 원인이 바로 우울증이다.

오늘날 이 우울증 때문에 알콜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정신병 환자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비참하게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또한 우울증에 걸린 남편이나 아내,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평화롭지 못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작든 크든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의 간이역에서 우울하게 사느냐? 명랑하고 기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누구든지 명랑하고기쁜 인생을 살기 원하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에 걸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우리가 하루 하루 살아가는 일생을 통해 명랑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기에 성경에 빈번하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겠는가?

그러면 왜 우울증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비오는 날 젖은 옷만 걸쳐야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강박관념을 비롯해 쓰라리고 상처받은 지난날의 쓴 추억, 현재의 환경에서 만족이 없을 때, 죄책감, 열등감, 좌절감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팔자소관 때문에, 등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그중에도 사람이란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면 어느 누구나 은연중에 삶의 회의와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고 만다. 사람이란 결코 등 따시고 배불러, 쾌락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얻고, 기반을 닦고, 자기나름대로 성공출세를 하였다고 인생살이가 콧노래를 부를만큼 항상 기쁘거나 절대행복하거나, 만사가 다 O.K.가 되는 전제조건은 다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누구든 아식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하는 삶의 목적없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성공을 해야 하느냐"하는 그 목적과 가치가 분명치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으로만 산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나라나,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알콜중독자나, 마리화나나, 자살자들이 더 급증하고, 남보다 월등한 지식이나 부와 명성을 얻고 사회적인 기반을 다진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바로 그 좋은 예가 부와 명성을 얻기까지한 헤밍웨이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자, 우울증으로 권총을 쏴 자살한 좋은 예이다. 어찌 그러한 사람들이 한둘이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성공출세를 하고, 사업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세워놓지 않고, 단순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하는 인생의 한탄이 언젠가 터져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땅에 찾아오심도 삶의 목적과 인생의 참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양적으로만 치중하여 살려고 하지말고, 양적으로 살되 더욱 내 인생을 질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우울증에서 벗어나, 명랑하고 참 기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낙엽이 지는 허무한 계절에 단풍구경도 좋지만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하느냐 하는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세워놓고 살아감으로 명랑하고 참기쁨을 맛보는 생애를 장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바로잡습니다—

본지 4일자 제2면 바이올리니스트·정경화 일터뷰 기사중 "이반·칼라이언교수"는 "이반·갈라미언교수"의 잘못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교민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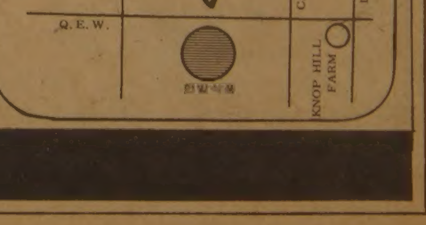
◆이학현 = 양로원건립위원회 재무부장이며 온타리오실업인협회 이사인 이씨는 2일 양로원기금 모금을 위한 워커톤을 마치자마자 막내처남 김회관군을 장가보내는 일로 분주하다. 토론토대학 엔지니어코스를 마치고 온타리오하이드로에서 일하는 김군은 9일(토) 상오11시 토론토한인연합교회에서 이정순양과 결혼식을 올린다.

저희 한발식품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라도 고객들께 저희 가게 매매문제로 혼돈을드린 점에 심심한 사과를 드리오며, 언제나 변함 없이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설동란·임수철 올림

품목	〈Spec.〉	〈Reg.〉
○장미쌀 50 Lb.	$13.95	~~$16.95~~
○햇조기 큰것 33 Lb.		
(1 Box)	49.95	~~59.95~~
Lb. 당	1.79	~~1.99~~
○회조개 깐것(횟감)	7.99	~~10.99~~
○낙지	7.99	~~9.99~~
○햇김(일본산) 100장	10.95	~~15.95~~
○한국특산재래김 50장	6.95	~~8.50~~
○명란젓(양념된것) Lb 당	4.95	~~6.95~~

※Red Delicious 사과를 농장가격보다 싸게 팝니다. 3Lb 당99¢

한발식품——466 SOUTH SERVICE RD. ☎(B)274-5401 (R)625-1078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피플誌 10월호에 소개

韓國系 톱모델 「매기·한」孃

한국계모델 매기·한(24)양이 10월4일자호 피플지 「룩 아웃」난에 소개되었다.

미와 지를 겸비한 한양은 로데아일랜드 배링톤컬리지에 근무하는 음악교수의 외동딸.

한양은 6년전 하바드대학1학년재학중 모델계에 투신, 지금은 뉴욕의 유명모델에이전시인 엘리뜨에이전시소속 톱모델이 되었다.

시간당 1백50달러의 모델료를 받는 한양은 삭스피프스에베뉴, 메이시, 블루밍데일 백화점의 캐탈로그모델로 활약해왔으며 TV컴머셜출연때는 하루 2천달러를 받아왔다.

한양은 한 열대섬에서 조난당한 선원에게 길레트면도를 주는것으로 처음 TV선전에 등장했었으며, 이번 가을에는 삭스백화점광고와 새로운 폰드크린싱크림선전으로 TV에 나오게된다.

그러나 한양은 다시 공부를 계속키로 결심, 이번학기부터 다시 하바드에 돌아갔다.

현재 동거중인 광고업자 로버트·폭스(32)의 권유에 따라서인데, 대학졸업후에는 저널리즘에 종사하고싶다고, 한양은 행정학및 역사를 전공하게된다.

▲우아한 포즈의 매기·한양.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81>

얼굴없는 死者 ⑤

「사건이 사건인만큼 모두가 각오하라고 생각하고 입해주었으면 해. 필요상 작전암호를 정하겠다. 암호는 한개. 안개작전이다. 앞으로는 토막살인사건수사라고 부르지말고 안개작전이라고 불러.」

그때 검시보고가 들어왔다. 법의학 관계의 전문가들은 직접 보고서를 들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다. 복사된 검시보고서가 수사요원들 앞에 하나씩 배부되었다. 요원들은 숨을 죽이고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성별=남자
·신장=1미터 79센티
·혈액형=RH(－)O형
·연령=30세 전후
·사망시간=12월4일 오전 10시에서 오후1시 사이
·사망원인=시안화수소(청산)에의한 호흡및 심장 마비
·개요=①척추의 후부에 해당하는 10번째 주름 [illegible] 10센티 정도의 자상이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다. 물론 치명적인 자상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치사속도가 훨씬 빠른 시안화수소에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②절단부의 자상은 예리한 흉기에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③안면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피가 벗겨져있다. ④열개의 손가락 끝부분도 표피가 모두 벗겨져 있어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다. ⑤시신은 예리한 흉기와 톱에 의해 절단되었다.

“檢屍결과… 키1m79·혈액RH(－)O型…”

피살자의 유류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의류조차하나 없는 상태에서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얼굴모습과 지문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나마 범인이 없애버렸으니 신원을 밝히기는 어렵게 된 것 같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머리가 일을 했었다.

「아까 그 말이 맞군.」 피살자가

朴男 그림

낮에 살해됐어. 그래서 낮에 시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모양이야. 그건 그렇고 어떻게든 신원을 알아내야할텐데 방법이 없을까?」

대머리는 검시를 맡았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안면 아니면 지문…둘중에 하나는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치는데. 방법이 없겠소?」

외사들이 몸을 움직였다.

「어렵습니다.」

그들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다른 외사가 그 뒤를 이어 입을 열었다.

「과학 수사연구소에 최신기계가 들어 왔는데 거기에 의뢰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계는 없어진 지문을 재생해서 그려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미국제품인데 원판을 지문이 남아있으면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의 사나이가 말을 받았다.

「피살자의 손가락 끝에는 지문의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손가락을 절단해서 버리지 않고 표피만 벗겨냈기 때문에 지문의 일부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얼굴도 재생해서 그려낼수 있을 겁니다. 몽타지 전문가에게 시켜서 한번 보일 필요가 있읍니다.」

세번째 외사가 말했다.

토론토항구경찰 해체
메트로경찰에 편입

토론토의 항구경찰(Harbor Police)이 창립 60년만인 지난 주말 해체되고, 메트로경찰에 흡수되었다.

이날 흡수선서식에서 전대원 42명은 자신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후 메트로경찰의 해양반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메트로경찰의 해양반은 대원이 56명으로 대폭 보강되었다.

메트로경찰본부에서 거행된 선서식에서 메트로경찰위원회(Metro Police Commission)의 필립·기번스 회장은 42명의 항구경찰관은 메트로경찰에 편승되었다해도 수행업무는 전과 같다고 말하고, 내년도에 메트로경찰의 해양반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화려한 해상창단식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토항구경찰은 항구위원회(Harbor Commission)에 소속되어, 토론토지역에만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해변이나 토론토경계를 벗어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고, 메트로경찰로 편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념식장에서 포즈를 취한 배승웅대령과(좌) 캐나다국방성 인력차관보 카스웰중장

한·가인사 350명 모여

오타와 한국대사관 국군의날 기념식

(오타와 = 이태은지국장)

한국군 건군34주년을 맞아 오타와한국대사관의 국군의날기념행사가 지난1일 오타와 소재 퍼·시즌호텔 티도룸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처음으로 오타와 시티즌·글로브앤드메일, CTV-TV기자등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 눈길을 끌었다.

한국대사관무관 배승웅대령이 주도한 기념행사장에는 국방성인력차관보 카스웰중장, 로이드·프랜시스 하원부의장, 참전용사회대표및 교민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리셉션과 함께 참석자전원에게 한국에 관한소개 영문책자(칼라원색)가 배부됐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휄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토 :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신장개업

고급 레스토랑 GRANADA에서 만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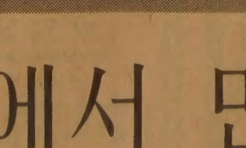
— 은은한 멜로디의 뮤직.
— 우아한 분위기.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년간 캐네디안 식당과 한국식당을 경영해온 경험을 살려, 금번 일류 요리사를 초빙, 일식과 한국음식(불고기, 갈비정식)을 캐네디안에게 소개하고, 더 나은 분위기와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고급 GRANADA 레스토랑 & Tavern을 인수했읍니다.
우선 지상을 통해서 교민여러분께 인사드리오니, 더욱 지도 편달을 바라옵고 성심성의껏 봉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영규 올림

※주위에 많은 주차장이 있사오니, 파킹염려는 마십시요.
※50명 이하의 손님을 위한 회의실을 마련했읍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등 예약 환영.

★캐네디안 음식
★일식 전문
★한식(불고기, 갈비정식)

영업시간
월~금 : 오전 8시~밤12시
토 : 오후 5시~밤12시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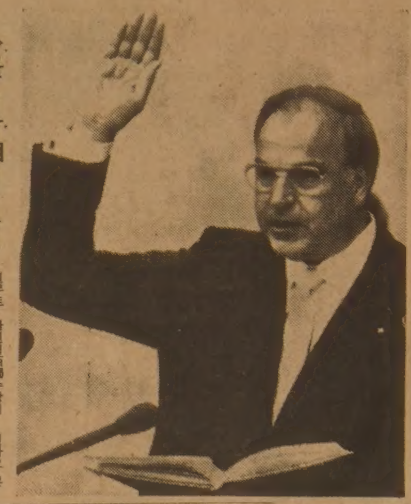


920 Yonge St.
(North of Bloor)
☎923-3060

한국일보

西獨 새首相 콜就任

슈미트不信任… 左翼·自由주의聯政붕괴



◇콜 새首相의 선서 헬무트·콜신임西獨수상이 1일하오 본의 연방의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있다. 【본=日AP聯合】

새內閣 내일중에 構成

13년만에 中道·右翼정부 出帆

【본=雅話】 서독하원은 1일 슈미트수상의 사민당 연립정부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가결하고 헬무트·콜 기민당 당수를 제6대 수상에 선출했다. 이로써 서독에서는 13년간에 걸친 좌익·자유주의 연립정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중도·우익 연립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콜당수는 하원이 슈미트수상 정부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찬성 2백56표, 반대 2백35표, 기권 4표로 가결한데 이어 신임수상으로 선출된지 2시간후 취임식을 갖고 『독일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서약했다.

콜 신임수상은 오는 4일 새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그때까지 사민당연립정부가 과도내각의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했다」. 서독하원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가결, 현직 수상을 축출해서 해임한것은 33년간의 서독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8년6개월간 집권해온 슈미트수상에 이어 새 서독수상이된 콜수상은 금년52세로 서 역대의 서독수상중 최연소자이다.

콜수상은 취임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기민당을 주축으로한 새 중도·우익연립정부의 첫 과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률을 끌어내리는것이라 밝혔다.

콜수상은 슈미트수상을 퇴진토록한 기민당의 행동을옹호하면서 자신은 중도정책을 추구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콜수상은 언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냐는 슈미트수상의 질문에대해 내년3월6일에 조기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대답했다.

슈미트前수상의 사민·자민연립정부는 한스·디트리히·겐셔외상의 자민당이 지난9월17일 연립정부에서 이탈, 보수계정당인 기민당과 손을잡기로 결정하고 뒤이어 기민당이 불신임동의안을 제출함에따라 붕괴됐다.

겐셔외상은 새로운 기민당연립정부에서도 외상직을 맡을것으로 알려졌다. 새 연립정부는 기민당·기사당(기민당의 자매정당)이 차지한다.

全대통령이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2일 西獨의 새수상으로 선출된 헬무트·콜 基民黨당수에게 축전을보내 『수상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韓獨양국의 상호이익과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테헤란서 大폭발慘事

5層호텔 폭삭…수백명 死傷

테헤란放送선 "美용병들 所行" 주장

【런던·앙카라 외신=綜合】 이란의 수도 테헤란市 중심가에서 1일밤 1백50㎏정도의 TNT가 적재된 부비트랩트럭이 터져 5층짜리 호텔과 달리던 버스 3대가 폭파되어 다수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냈다고 테헤란 라디오방송이 2일 보도했다.

영국의 BBC방송이 청취한 이 방송은 폭발사고로 몇명이 사망했는지는 밝히지않았으나 한 병원에만도 4백명의 부상자가 실려왔으며 시내병원의 절반이 부상자들로 붐비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폭탄이 1일밤 8시35분(한국시간 2일새벽 1시35분) 테헤란시 중심부 나세르·호스로우가의 호텔앞에 주차해있던 트럭에서 폭발, 다른 호텔7개소와 다수의 주택및 상점들도 크게 파손됐다고 말했다.

이 폭발로 마침 이곳을 지나던 2층버스 2대와 단층버스 1대를 파괴시켜 승객 대부분이 사망또는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피해자는 주로 호텔에 있던 손님들과 부근 광장이나 음식점에서 식사중이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히고 이 폭발로 깊이 6m 넓이 4m 길이 2m의 구덩이가 패였다고 덧붙였다.

테헤란방송은 이 폭발사건이 미국용병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政治議案」論難예상

내일 國會本會議속개 5일 各黨대표자 演說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속開, 정부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따른 施政연설을 들은뒤 각당 대표연설과함께 각 분야별로 對정부질문을 전개한다.

4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되는 본회의는 첫날 정부의 施政연설을듣고 국무위원의 출석요구를 결의한뒤 5일에는 各黨대표연설을,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공휴일 2일 포함) 對정부질문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이번 對정부질문에서 民正黨은 제5공화국 이념의정착과 경제및 민심안정책에 역점을두고 民韓, 국민당등 野측은 원내 활동 지침으로 내세운 「정치 회복」과 「국민苦痛의 해소」등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특히 야당측이 심의를주장하고 있는 국회법, 지방자치법, 언론기본법등 개정안과 정치被규제자 해금건의안등 「政治議案」처리문제를놓고 與野간에 논란이 예상되는데 與黨측은 야당측이 주장하는 「정치의안」을 포함한 제반 의안에관해 常委별로 與野간 사회에서 심의의안과 일정을 결정토록할 방침인데 비해 야당측은 정치의안의 우선심의를 고집할 방침이어서 격론이 벌어질것으로 보여진다.

民正, 民韓, 국민등 3당 총무들은 4일 본회의에앞서 총무회담을 열고 常任委별로 日程을 협의한다.

5일부터 12일까지 對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일(정당대표질문)=陳懿鍾(民正·정책위의장) 李泰九(民韓·부총재) 申喆均(국민·사무총장) ▲6~7일(정치·외교·안보)=李致浩 河舜鳳 柳根桓(이상·民正) 韓光玉 許景九(民韓) 金基洙(국민) 黃明秀(議同) ▲8~9일(경제)=鄭順德 李載雨 安甲濬(이상·民正) 池貞道 李炯培(이상·民韓) 趙炳鳳(국민) 李龍澤(議同) ▲11~12일(사회)=李寧熙 孫春昊 張聖萬(이상·民正) 金永俊 趙鍾益(이상·民韓) 金翰宣(국민) 金順圭(議同)

軍有功者·우수부대 全대통령이 勳表彰

全斗煥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상오 청와대에서 尹誠敏국방장관 金潤鎬합참의장과 3군참모총장등 軍고위관계자 10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국가안보및 軍발전에 功이큰 有功者와 금년도 종합 優秀부대로 선정된 軍부대에 각각 훈장등을 수여한뒤 이들을 위해 다과를 베풀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金潤鎬합참의장 金相台공군참모총장 朴鶴栄韓美연합사부사령관 鄭鎬溶육군대장등에게 保國훈장統一章을, 육군2621부대등 육·해·공군 6개부대에게는 대통령 부대표창을각각 주었다.

이밖의 勳章·표창 내용은 다음과같다.

▲保國훈장國仙章=9명 ▲〃三一章=3백41명 ▲〃天授章=56명 ▲〃光復章=62명 ▲포장=1백38명 ▲대통령표창=1백73명

蘇俊烈大將 신고받아

全斗煥대통령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육군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蘇俊烈장군으로부터 進級신고를받고 계급장을 달아 주었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과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이 배석했다.

歪曲시정·經協 논의

뉴욕서 韓日外相회담

【뉴욕=金泰雄특파원】 李範錫외무장관은 2일상오(한국시간3일새벽) 뉴욕의 피에르 호텔에서 사꾸라우찌 요시오(櫻內義雄)일본외상과 韓日외상회담을 갖고 일본교과서 왜곡시정문제, 韓日經協문제등 양국의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회담에서 李장관은 교과서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시정자세를 촉구했으며 사꾸라우찌 외상은 지난달27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 전달한 교과서왜곡 시정방향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經協문제에 대해 양국외상은 빠른시일안에 협상을 재개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30일 하오 케야르유엔사무총장 주최 리셉션에서 사꾸라우찌외상이 李장관에게 韓日양국의 현안을 협의키위해 만날것을 제의, 이뤄졌다.

한편 사꾸라우찌외상은 1일하오 유엔연설에서 한국문제에 언급, 『한반도에는 아직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본인은 지난1월 한국정부가 제안한 평화통일방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南北간의 대화실현을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北傀軍部대숙청

將星10여명除去

【北京外電=綜】 금년초 북괴군고위장성이 중공으로 탈출했다는 루머가 떠돌기시작한것과 때를같이해 발생한 북괴군지도부의 일대숙청사실을 2일 이곳소식통들이 확인했다.

북한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金日成이 자신의 아들 金正日을 후계자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평양당국지도체제에 의해 저지되었을때 알려지지않은 이유로인해 약10여명의 북괴군장성이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德壽建設(株)鄭逢雲대표外 3백10만원

德壽木材(株)朴明根대표外 1백30만원

德壽物産(株)尹學淳대표外 60만원

舍北邑 고한국민학교 교직원·학생일동 67만원

◇鄭逢雲씨

◇朴明根씨

仁川中區仁峴洞 주민 24만원

議政府長谷洞8통주민 17만원

大邱梨谷2洞노종철外 13만원

▲德壽建設(株) 대표이사 鄭逢雲씨외 임직원 同=3백10만원 ▲德壽木材(株) 대표이사 朴明根씨외 임직원 同=1백30만원 ▲德壽物産(株) 대표이사尹學淳씨외임직원 同=60만원 ▲江原道旌善郡舍北邑 고한국민학교교장 김주열·교감李규태·유공상 교직원및 학생(대표 남춘범·인솔교사 김영록) 同=67만4천4백50원 【舍北支局접수】

▲仁川市中區仁峴洞주민 同=24만7천원(2통=5만원, 4통=7만7천5백원, 13통=3만원, 6통1반=1만6천원, 6통2반=3만원, 7통1반=1만1천원, 7통4반=1만5천5백원, 8통3반=1만7천원) ▲議政府市長谷洞8통 이강진통장외 반원 同=17만4천원 【의정부지국접수】

▲大邱市西區梨谷2洞 새마을지도자 노종철씨외 36명=13만7천원 【大邱支社접수】 ▲한국극동지구교역처지점2601 최동한씨외 직원 同=7만5천원 ▲富川市松内洞13통 松友會 同=3만원 ▲京畿道南楊州郡인창국민학교부교실 김복자씨=2만3천2백40원 ▲서울창서국교2학년1반 장인구군=5만원 ▲議政府市長谷洞 4통3반 강봉완씨外1명=1만3천원 【의정부지국접수】 ▲長谷洞5통 통장 김영진씨외반원 同=3만7천원 ▲長谷洞12통 통장 이유원씨외반원 同=1만2천5백원 ▲長谷洞7통4반장 이춘자씨외반원 同=1만5천원 ▲長谷洞6통1반장김옥자씨외반원 同=2만1천5백원 ▲長谷洞6통1반 정영희씨=1만원 ▲長谷洞1통5·6반장 주정자씨 양해수씨외반원 同=3만2천원 ▲한국일보의정부지국장 이광남씨=1만원 ▲江東區가락시영아파트 53동4반주민 同=1만원 【송파보급소접수】 ▲匿名의독자=1만원 ▲서울영등포중학교1학년 이진원군=6천원 【〃】

主婦생활手記 현상公募합니다

삶을통해 엮은 생생한 이야기들期待

원고지 80~1백장 內外

마감 오는 11월30일까지

한국일보社는 국내와 해외 동포 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활수기를 현상공모합니다. 주부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통해 겪은 여러가지 기쁘고 즐거웠던 이야기,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체험기,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슴뿌듯한 감동의 휴먼스토리들을 참신하고 생생한 필치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 경영자인 주부에게는 매일 날모르는 크고 작은 체험과 喜歡이 있을것입니다. 오랜동안 삶을 짓눌려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풍족한 오늘을 일군 이야기나, 또는 사업실패등으로 어느날갑자기 닥쳐온 시련과역경을 의연하게극복한 성공담, 또는 가족들의 병상을 오랫동안 지켜온 투병기, 장애자 가족의 팔이 되고 다리가되어 굿굿한 재활의의지를 심어준 얘기등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 낯설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착한 해외 동포 주부들의 체험기는 이민 지망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요령

▲원고 분량=2백자원고지 80~1백장내외 ▲당선작 고료=최우수작 1명 50만원, 우수작 2명 각30만원, 당선작 5명 각10만원 ▲마감=11월30일 ▲보낼 곳=서울 鍾路區 中學洞14 한국일보사 문화부 생활수기 담당자앞(우편번호 110) ▲기타=우편물 겉봉에 「주부생활수기 응모작」이라고 明記할 것.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그때 이정도는 잡아놓는건데…"

地平線

온갖꽃은 저마다 지닌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다. 모란의 豊艶, 백합의 고결, 매화의 청아를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즐기고 아끼는 꽃이 서로 다르다. 자연의 四季에 따라 계절의 꽃도 갈려진다. 우리네 봄은 진달래로 피어난다. 산과 골짜기나 들어디고 마치 시골처녀 같이 잡목 수줍음을 머금고 붉게 나오른다. 봄의 설렘이 숨겨 있는 것이다.▼「秋花」은 국화에 닿지 부르인는다. 진달래가 감정의 꽃이라면 국화는 사색의 꽃이라 부르고 싶다. 이들이 있어, 우리의 봄·가을은 더 향기롭다. 가을은 정념 사색의 계절이다. 생각하는 갈대인 사람은 「생각하는 국화」 곁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음미해 볼수있다. 서리찬 하늘 높이 기러기가 北向채비를 할때면 국화는 「高節의 향」을 은근히 뿜어준다. 梅·蘭·菊·竹으로 四君子의 자리에 오르는 국화는 東籬佳色이란 별칭을 가졌다. 모란, 작약과 함께 꽃의 3佳品이라고도 한다.▼원예종 국화의 아름다움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야생 들국화의 높은 기품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국화도 일품으로 꼽힌다. 꽃중 국화는 약5천년전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신비한 靈藥으로 여겼고 그 이슬을 마시면 不老長壽한다는 신화를 낳았다. 또 後漢시대에 와선 음력9월9일을 重陽節로 정해, 국화주를 마셔 재앙을 쫓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원산지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널리 퍼져있다.▼서양의 학명인 Chrysanthemum은 황금색의 꽃이란 뜻. 지금의 원예종이 아닌 지중해연안의 자생종에 붙었던이름이다. 장미가 서양의 꽃이라면 국화는 동양의 꽃이다. 옛사람들이 관상하며 찬양한 다섯가지 아름다움도 東洋色이 짙다. 높다랗게 달린 꽃송이는 天極의 모습, 황색꽃은 땅빛, 일찍 심어 늦게피는 君子의 德, 서리를 이기는 강직, 술잔에 동동 뜨는 신선의 음식이란 생각이 그렇다.▼探木寒天에 홀로 피는 고고한 자태가 바로 군자의 얼굴을 연상케 한다. 국화는 생각하는 계절의 꽃이다. 「가을의 여왕」이란 화려한 修辭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들린다. 菊花와함께 가을의 꽃인 國花 무궁화도 오늘 「開天의 뜻」을 머금은듯 자랑스럽다. 깊어가는가을, 한권의 책을 벗하고 국화 앞에서 마음의 糧食을 얻는 良識이 아쉬울때다.

구리의理想은建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희소식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체크·업하고 교환해 줌.
⊙바라이어티 가게, 밀-스토어, 레스토랑 그리고 간이음식점에서 성황중.
TRANS AMERICAN
☎ : 636-0906

★알공킨 단풍관광

(제14회 Y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때 : 10월9일(토) 오전8시~오후7시반
●곳 : 알공킨 국립공원
●회비 : $20(납부된 회비는 반환치 않습니다) ★점심 각자지참.
●경로후원 : 국제와이즈멘 알파클럽·Y합창단
●빠스 : 냉방·난방·화장실 시설이 있는 관광빠스
●모집인원 : 약100명 선착순
A호차(청년중심의 씽얼롱과 게임을 하며 가는 차)
B호차(노인들끼리 여흥을 즐기며 가는 차)
C호차(조용하게 쉬면서 가는 차)
스쿨빠스(경제적으로 가족이 함께 가는 차 $10)
●집합장소 : 931 College St.(도바코트 코너)
●전화 : 536-1166

★Y. 웨스톤한글학교

◆때 : 매주수요일 하오4시반~7시
◆곳 : Daystrom국민학교(삼복식품뒤)
◆대상 : 유치원-8학년

★취미교실

●매주토요일 West End YMCA 3층
백미애 무용교실(2시-3시반)
이태우 태권도교실(4시-5시반)
노경심 피아노교실(2시-5시)
이진화 바이올린교실(3시-4시)
전수연 미술교실(2시-4시)
권혁일 기타교실(2시-4시)
*두과목이상 $60, 두형제이상 $5씩 할인
◉스쿨빠스운행 : 선착순12명
◉문의나 신청은 536-1166 미스터 김(창열)
YMCA 931 College St, Tor,

★Y. 토요학교(무료)

★매주토요일 오전10시반~하오1시
★Bickford Park고교
777 Bloor St, W.(크리스티 지하철부근)
한글 : 유치원~8학년 3반
영어 : 노인및 남녀청년및 성인 4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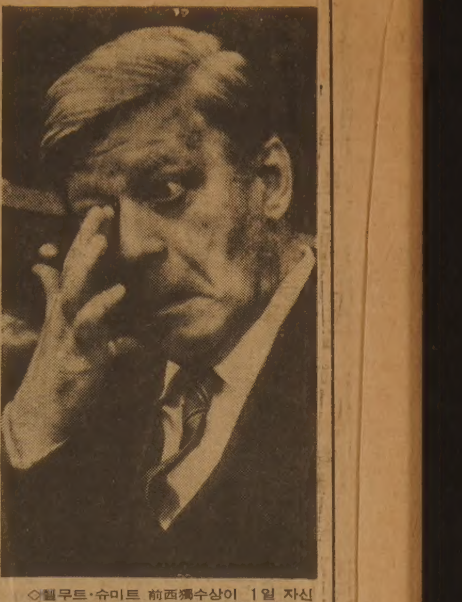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背信당한 슈미트

西獨연방의회 始終 정치道義논쟁만…



◇헬무트·슈미트 前西獨수상이 1일 자신에대한 議會불신임투표가 있기직전 곤혹스런표정으로 눈을 부비고 있다。슈미트는 이표에서투패배, 헬무트·콜신임수상에게 권좌를 넘겨주었다。 【본 1일AP電送=聯合】

◇아더·번즈西獨주재 美대사(가운데)가 30일 西獨주재각국대사들을위한 리셉션에서 블라디미르·세묘노프西獨주재蘇대사(오른쪽)가 옆에서 지켜보는가운데 헬미트·슈미트西獨수상(왼쪽)이 어깨에 팔을 올려놓고 있다. 【본30일UPI電送=聯合】

人氣있는 정치인 이면서도 정권을 내놓아야했던 슈미트수상은 누구보다도 할말이많았다.

슈미트의 화살은 먼저 지난13년간 聯政파트너였던 自民黨쪽으로 향했다. 東方정책의 기수 브란트사임에이어 74년함께 집권해서 유럽제1의 경제국으로 국세를 신장시켰던 功을함께 나누어 가졌던 自民黨이 인플레, 失業으로 제기된 過는 社民黨에

패배가 돌이킬수없는 추세라고 판단한 슈미트는 이어 정권을 넘겨받을 基民·基社·自民黨의석을 향해서 경고라도하듯 나지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취하고있는 행동은 합법이지만 내면의 도덕적 당위성은 없는것』이라고.

이에대해 基民黨측은 『사민당정권은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가만두면 더욱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것』이라

功은 自民…過는 社民黨전가

西獨연방의회는 1일 장장 6시간반동안 열띤 토론끝에 헬무트·콜 基民黨首에게 새 정부 구성의 배턴을 안겨주었다.

그자리는 형식상 지난8년반동안 社民黨주도聯政을 이끌어온 헬무트·슈미트 수상 불신임을 의결하는자리였다. 이날토론은 그러나 잘못을 어나간 정책을 따지는게 주류가 아니었다. 시종 정치道義논쟁으로 일관된 색다른자리였다.

연방헌법의 독특한 규정때문에 『여전히 선독에서 가장

계만 떠넘기고 물아설수 있느냐는게 골자였다.

사실 이번 정권교체는 집권社民黨의 과실이아니라 自民黨의 연정이탈로 비롯된만큼 재고를 요청하는 슈미트의 마지막호소는 애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 응수했다.

어쨌든 이날 논쟁에 노장 헬무트는 西獨사상 의회의 의결을 통해 축출되는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정치색깔이 전혀 다른 또한사람 신진 헬무트가 西獨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

정권교체를 결정하는 자리가 정책토론이 아니라 道義논쟁으로 일관되었다는점은 곧 금후의西獨이 불확실요소를 전례없이 많이 지니게 될것임을 예고한듯이다.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總意를받지않고 출범한 基民연정은 83년3월6일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민의 追認을 받겠다고 밝혀두고있다.

하지만 능률과 실용·합리주의로 특징지을만한 슈미트정권이 제대로 다루지못한 인플레, 失業문제를 5개월남짓 남은기간동안에 基民黨인들 해결할 妙手가 있어보이지않는다.

새聯政에 참여한 제휴정당들사이에도 문제가적지않다. 말을 갈아탄 自民黨내 분열은 균터·베르후에겐 사무총장의 사임에이어 슈미트不信任案표결에서 찬성34, 반대18표로 현저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우익보수라는 노선에서 基民·基社양당이집권을 하기까지는 의기투합했으나 장래는 결코 순탄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이두정당간의 마찰은 우선 제휴상태로 끌어들인 自民黨의 정강을

〃合法的이나 內面당위성은 없다〃

마지막까지 離脫再考 애절한호소

어느만큼 受容할것이가 놓고 빚어질것 같다. 그다음엔 연정을 이끌 헬무트·콜이 펼칠 리더십의 색채가 문제가 될것이다. 헬무트·콜지지에 基社黨의 50표를 일사불란하게 몰아준 프란츠·슈트라우스당수의 極右이념은 콜이총선에서 승리할수있는 실적을 쌓는과정에서 적잖은 골칫거리를 안겨줄것으로전망된다.

헬무트·콜의 약점은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로부터 출발하여 국제적 차원의 정치가로 성장한 슈미트같은 자질을 별로 찾아볼수 없다는게 꼽히고있다. 현대 정치는 경제가 좌우하고 경제는 구체적 계수에 밝아야하는데 콜같은 관리자型 정치인이 오늘날 西獨의 과제를 풀수없을것이라고 정계 슈미트는꼬집은바있다.

콜이 이어받은 서독은 2백만이 넘는 실업자고도 미사일배치를 비롯한 核방위문제로심히兩極化되어있다. 아주 극단적인 두현상으로 지난 5월과 6월사이에 벌어진 좌우의 대규모 示威를 들수있다. 5월엔 基民黨이 10만명에 이르는 이른바「조용한 多數」를 끌어모아 미국노래를 부르면서 전역核 배치등 레이건 정책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었다.

그로부터 수주뒤 레이건의 서독방문때에맞추어30만명의 대한의 집회가 있었다. 청바지차림에 수염투기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들은 섭조기를 태우고 유럽의 핵 凍結을외쳐댔다. 나토의 최전선국가로서 우려를 이두 집회는 반증해주었다. 슈미트는 바다에 깔린 대립된 이두세력을 무마하기위해 미국의核미사일배치계획은 일단 받아들이되 현재 제네바에서열리고있는 東西유럽간 核감축협상결과를볼때까지核설치는연기한다고 얼버무려놓았었다.

社民黨이 야당으로 밀려난 이제 綠色黨등 평화운동그룹은「선로내 미군기지를 몸으로 봉쇄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를 마비시키고말것」이라는 엄포를 행동으로옮길 여지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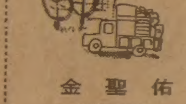
슈미트정권 붕괴에 가장 우려를 나타낸건 물론 소련이었다. 미국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했던 슈미트는 미국을 제치고 소련을 먼저 공식방문한 최초의 서독수상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정책을 바로 읽어 西方에 알려준 전달자로서 그의 공은 컸다. 그런 역할을 할만한 인물을 잃었다는 아쉬움은 미국측에서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총선까지 5개월 동안 基民聯政이 다가오는 먹구름을 헤쳐내는 솜씨를 보고난 뒤에야 가늠할수 있을것이다. 【金炳武기자】

메아리

이사철



金聖佑 <論說委員>

秋夕도 쇠고 했으니 이사가 시작될 철이다.

지난달 26일이 소위 「손없는날」이어서 秋夕이고 뭐고 급한 김에 이사를 하고난 어떤 아는사람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불평을 한다. 새로 집을 전세로 얻어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그 전날 집을 비워준 사람이 온갖 살림의 껍질들을 다 버려둔채 청소도 안하고 그냥 나갔더란 것이다. 짐을 마당에 쌓아놓은채 먼지를 둘러쓰고 청소부터 하자니 하루해가 다 가고 이사를 들어온것인지 나가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다는 푸념이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한 무슨 제도같은것이 없느냐고 묻는다.

사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끼리뿐 아니라 입주자와 집주인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말썽의 소지는 있다. 집을 깨끗이 썼는데 험하게 썼다니 무엇을 새로 고쳐 달라느니 못고쳐 주겠다느니 해서 시비가 자주 생긴다. 새집이라도 마련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닌바에는 이사란 대개가 마지못한 것이요 결코 즐거운일이 아닌데 게다가 입씨름까지 한대서야 분하고 서러운 노릇이다. 집을 들고 나가는데는 으레 복덕방이 사이에 끼게 마련이지만 복덕방 사람들은 값흥정만 할뿐 계약이 성립되어 구전만 받고나면 손을 떼어버린다. 나머지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다.

외국의 제도를 물어온 그사람에게 들려준것은 프랑스의 경우였다.

프랑스에도물론 복덕방이 있다. 월세로 들때를 예로들면 복덕방은 임대계약이 성립되면 입주하기이전에 반드시 현장 점검의 날을정한다. 현장 점검은 집주인과 입주자가하는것이아니라 복덕방과 입주자가 하는일이다. 복덕방에서는 입주할때의 집상태를 낱낱이기록한다. 벽의 손때 묻은것하나, 못자국하나, 마루바닥 긁힌자리 하나까지 상세히 적는다. 이때 입주자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있으면 요구를한다.

집을 비워주고나갈때 이삿짐을 다실어내놓고 다시복덕방과 현장점검을해야 한다. 이때 또 집의상태를 하나 하나 다 챙긴다. 그래서 입주때의 점검명세서와 대조를하고 그동안 망가진것이 있으면 맡긴 보증금에서 그수리비용을 제한다.

이렇게 퇴거할때 점검을 받아야하므로 집을 비우면서 청소를 안해놓을수가 없다. 깨끗이 쓸고 닦고해서 복덕방의 「합격」판정을 기다린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파손된것이 있으면 제손으로 고쳐놓는것이 이익이다. 복덕방이 계산하는 수리비용은 대개 실비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프랑스에 와서 집을 얻어들어갈때 복덕방의 이 현장점검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대해서 넘겨버린다. 그러고는 집을 나갈때 보증금을 모조리 다 떼이기가 일쑤다. 복덕방에서는 입주때보다 퇴거때 점검이 까다롭다. 따라서 입주때는 들어가는 사람쪽에서 꼬치꼬치 집의 흠을 찾아내어 다 기록시켜야 한는것이다.

이렇게 모든 이사가 복덕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끼리나 집주인이 서로 만날일도 없고 충돌할일도없다. 간혹 悪徳집주인과 시비가생기는것은 복덕방비를 아끼느라고 집주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덕방의역할이 좀더 확대된다면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않는 이사철이 되지않을까싶다.

그렇다고해서 항상 복덕방을 믿고만 있어서도 안된다. 현장점검에도 때때로 함정이 있다.

파리에서 방을하나 얻었을때 복덕방에서 현장점검을 나왔다. 창문의 블라인드 커튼이 망가져서 고쳐달라고 하자 그러마고했다. 입주를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고쳐주지 않아서 복덕방에 독촉을 했더니 며칠뒤 수리공을 보냈다. 수리공은 고칠것을 보기만하고는 여름휴가가 지나고 다시 온다면서 가버렸다. 그러고는 종무소식이었다. 1년뒤 집을 비워주면서 현장점검을할때 고치지 않은 커튼을 기록시켰다. 그후 복덕방에서 보증금의 잔금을 보내왔는데 보니 커튼수리비조로 많은 액수가 제해져 있었다. 복덕방측말은 입주할때 망가진 커튼을 고쳐주었는데 그새 다시 망가뜨렸으니 수리비를 내야한다는것이었다. 언제 누가와서 고쳤느냐고 항의를 하자 수리한 회사의 증명서가 있다면서 억지를 썼다. 1년이상을 끈 시비끝에 마지막에는 그복덕방회사의 사장에게 直訴했더니 얼마뒤 수리비로 제한돈을 보내왔다. 미안하다는말 한마디 없었다.

프랑스에 체재하는동안 이 悪徳房의 소행은 내내 프랑스의 이미지로 남아 떠날때까지 끝내 지워지지않았다.

椎名의「韓·日秘史」

日記와 外交메모로 본 그幕後 <1>

지난65년 韓日協定당시 일본의 外相으로 自民黨부총재를 역임한 故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씨의 傳記가 최근 출판됐다. 그의 他界 3년만에 시이나 追悼錄간행위원회에 의해 출간된 이책에는 당시 韓日교섭막후의 秘史를 비롯, 양국의 공개되지않은 일화들이 수록돼 있다. 이책의 내용들가운데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뒷얘기들을 발췌, 정리해본다. 【東京=宋孝彬특파원】

「植民反省」어물어물 매듭

美 越南戰자극 막후지원

5·16혁명으로 執權에성공한 한국군사정부의 지도자들은 경제개발을통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최급선무로 내세웠다.

5·16주체세력들은 이를 위해 막대한양의 경제개발자금을 필요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면서 對日청구권문제에 대해 협상을 한뒤, 일본에서 받아낼 돈으로 경제개발에 착수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韓日국교정상화를 위한 본격적교섭은 朴正熙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케네디미국대통령의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61년 11월을전후로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朴正熙의장은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공식방문하기로 결정했다.

朴의장의 일본공식방문이 결정되자 韓日국교정상화 예비절충을 위한 韓·美·日3국간의 막후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국군사정부의 최고실력자중한사람인金鍾泌씨가 10월24일 일본을 방문, 이께다(池田)수상등 일본수뇌진과 회담을 가졌다.

11월1일에는 딘·러스크美국무장관이 東京으로 날아와 이께다수상과 韓日국교정상화 문제를 논의한뒤 서울로가서 군사정부 지도자들과 會同했다.

미국은 韓日국교 정상화과정에서 표면에 나서진않았지만 韓日관계가 보다긴밀해져서 極東에 강력한反共보루가 형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朴의장은 11월11일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14일에는 미국을 방문했다.

朴의장의 訪日과 訪美를 계기로 韓·美·日 3국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한 韓日교섭에도 한층 박차가가해졌다.

62년11월金鍾泌씨가 다시 일본을 방문, 오오히라(大平正芳)외상과 회담, 對日청구권처리방식과 금액에 대해 합의한 金·오오히라메모를 작성했다.

金·오오히라 메모작성으로 韓日국교정상회담은 본궤도에 올랐다.

金·오오히라메모는 한국의 對日청구권을 유상·무상을 합쳐 5억달러선으로 하기로 했다. 본궤도에 오른 韓日교섭은金·오오히라 메모가기폭제가되어 양국에서벌어진 격렬한 반대운동으로인해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이와중에서 韓日교섭의 주무장관인 양국의 외교총수가 교체되었다.

64년5월 한국에 丁一權내각이 성립하고 약관39세의 李東元씨가 외무장관이됐다.

10월에는 金東祚씨가 駐日대사로 부임해왔다.

64년7월의 이께다 3차내각에서 시이나(椎名)가 외상으로 기용되었다.

韓日교섭이 외상경질로 새국면을 맞자 미국의 막후중재도 활발해 졌다.

9월하순에 번디 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며 거중조정에 분주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것도 韓日교섭을 추진시킨 한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양상이 심각해지자 아시아우방들의 단결을 바라게 되었고 韓日국교정상화도 이러한 맥락위에서시급해졌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이전에 일본측으로부터 36년에 걸친 제국주의 식민수탈정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자 했다.

한국은 일본측에 사과특사의 訪韓을 요청했다.

사과특사로는 전후 일본 보수정책의 거두인 요시다(吉田茂)前수상이 거론되었다.

일본은 야당과 언론을자극할것이라는 이유를 내세

◇당시의 李東元외무장관(우)이 韓日기본관계조약협상차 金浦에 도착한 시이나外相을영접하고 있다. 두외상은 심야의 요정會談을 통해 조약假調印에 성공했다.

〃請求權액수 는다〃 謝過특사 안보내

朴대통령「將軍會食」지시

워 사과특사派遣을거절했다.

한국측이 요구한 사과특사의 訪韓은 실현되지 않았고 국교정상화회담을 위한 시이나외상의 訪韓이 결정되었다.

한국은 시이나가 한국에 도착할때 발표할 도착성명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기를 희망해 왔다.

65년 2월17일 시이나외상은 예정대로 金浦에 도착했다.

시이나는 도착성명에서 『韓日양국간의 긴 역사속에서 불행한기간이 있었다는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울뿐이며 깊이 반성한다』고만 얼버무렸다.

불행한기간이 언제를 의미하는건지 반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하기 짝이없는 외교적修辭였다.

對日청구권처리문제에 있어서 한국측에 새로운구실을 주지않으려고 고심끝에 나온 도착성명이었다.

韓日기본관계조약작성을 위한 외상회담은 예상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돌파구는 일본대표단의 귀국전날인 19일 밤에왔다. 시이나 주최로 리셉션이열렸다. 파티중간에 李東元씨는 시이나에게장소를옮겨 단독대좌할것을 요구했고 양외상은 아시아국장만을 대동하고 요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李장관이 안내한 요정에 도착한 시이나는 깜짝놀랐다. 요정1층에陸·海·空3군장성들이 술을마시며 두외상을 기다리고있었다.

李장관은 시이나에게 이들과 동석할것을 권유했다. 시이나는 장군들의 대화가 한국말이라정확한 뜻은알지못했지만 흥분된 분위기를 직감할수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장군들의 요정會同은 회담을지속시키기위한 朴대통령의 특별지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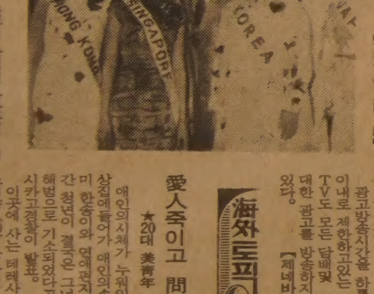
기진맥진한 두나라 외상을 독려하기 위한 계략이였다.

두외상과 두명의 아시아국장등 4명은 요정2층으로 올라가 회담을 계속했다. 韓日기본관계조약의 文案이 합의되었고 李장관은 鎭海에있던 朴대통령에게 무선연락을 통해 재가를 얻어냈다.

20일 새벽 1시였다.

한편 시이나는 새벽6시부터 전화를 통해 사또수상등 자민당수뇌의 재가를 얻는데 성공했다.

20일 하오 韓·日기본관계조약은 양국외상 입회아래 가조인됐다.



◇미스·인터내셔널참가 美人들 도쿄(東京)에서 개최되는 미스·인터내셔널대회에 참가할 아시아각국의 美女대표들이 1일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 美女가 韓國대표. 【東京=1일AP聯合=電送】

海外토픽

담배·麥酒광고금지

★스위스제네바州내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주당국은 내년부터 담배및 독한술에 대한 공공광고를 전면금지하기로결정.

주당국은 이에따라 담배와 와인및 맥주보다 독한술에대한 가두및 버스광고등 공공광고가 금지될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실내나 극장등 제한된 수단을통한 광고는제속 허용된다.

광고방송시간을 하루 30분이내로 제한하고있는 스위스TV도 모든 담배및 주류에 대한 광고를 방송하지 않고 있다. 【제네바=UPI】

愛人죽이고 問喪가

★20대 美青年 起訴돼

애인의시체가 누워있는 초상집에들어가 애인의손에 장미한송이와 연애편지를놓고 간 청년이 결국은 그녀의 살해범으로 기소되었다고 미국시카고경찰이 발표.

이곳에 사는 테레사·카민스키양(19)은 작년7월 엘런·슬초군(23)과 외출한뒤 실종됐다가 1주일만에 근교의 나뭇더미에서 시체로발견되었는데 추행당한뒤 목졸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나의 연인 테레사에게 사랑을 가득보내며- 듀언·엘런·술촌」이라는 쪽지를 근거로 술초군을 추적, 술초군이 마침내 경찰에서 자백함으로써 유괴살인및 추행혐의로 기소된것. 【시카고=UPI】

飮酒로 적혈구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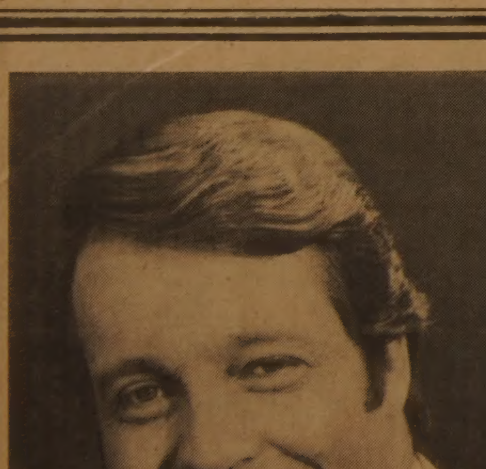
★야채들면 피해補完

美존·홉킨즈의과대학의 제리·스파이벡박사는 사람이 마신 술은 그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체내에서 적혈구를 파괴하나 야채를먹음으로써그 피해를보완할수있다고주장.

스파이벡박사는 아무리 적은 양의 알콜일지라도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가벼운 칵테일까지도 적혈구의 생산과 성장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스파이벡박사는 그러나 야채를 먹음으로써 알콜로 인한 적혈구파괴를 중단시키거나 정상으로회복시킬수가있다고 덧붙였다. 【보스턴=UPI】

구독신청 배달사고 688·2801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 · 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등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 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 사회자입니다. 그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 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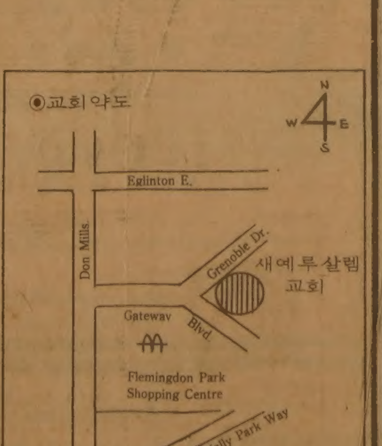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교회약도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있는 푸래밍돈·파 샤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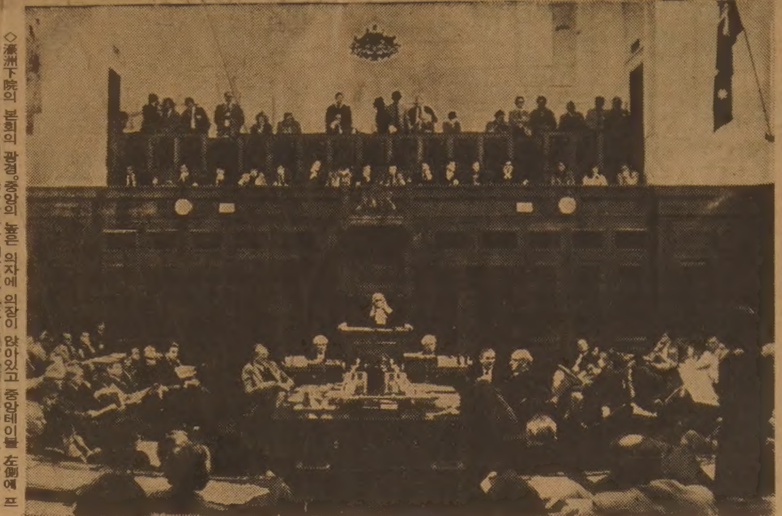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李以春 기자
趙聖鎬 〃

焦點 民主主義는 代議政治… 이웃나라 議會를 가본다

민주주의는 곧議會정치로 요약된다. 歐美에서 發源된 의회제도는 국민의의사를 최대한 代辯한다는 大前提가 있지만 운영방식과 스타일에 있어서는 憲政제도가 대통령중심제와 內閣責任制,그리고 그나라 정치文化와 풍토에 따라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새시대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11대국회는 이제 막 序幕을 연 제114회 정기국회를 고비로 定着단계를 맞고있다. 다른 나라의 의회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와는 어떤점이 다른가. 최근 日本과 濠洲의 議會제도와 운영상황을 취재하고 돌아온 記者들로부터 實相을 들어본다. 【政治部】

民意가 숨쉬는 議會



◇濠洲下院의 본회의 광경。중앙의 높은 의자에 의장이 앉아있고 중앙테이블 左側에 프레이저 首相이, 右側엔 야당당수와 副당수가 앉아있다。全面 2층은 기자석。

英國式 제도에 自由·秩序공존 濠洲

1週3회 上·下午조정 開議 規則 위반엔 엄격한 制裁

歐美의 議會제도는 대체로 본회의중심운영의 英國式과 常任委중심의美國式으로 구분된다.

韓半島의 36배가넘는 광대한 국토와 무진장한 資源을 갖고있는 濠洲는 영국後裔들이 세운 나라임을 입증하듯 영국의 議會제도를 고스란히 모방하고있다.

그런 濠洲의 의회는 자유와 질서, 권위와 實質이 공존하는 모임장같았다.

기자는 지난9월초 수도 캔버라에 있는 의회를 방문, 與野가 한창 정치攻防을 전개하는 下院본회의를 방청하면서 회의운영과 의사규칙의 적용등을 눈여겨 볼 기회를 가졌다.

9월6일하오1시45분, 濠洲의 下院본회의장. 開議시간 5분전부터 요란히 울리던 벨소리가 멈추고 스네든 의장이 자리를 잡자 프레이저수상, 閣僚, 의원들이 모두 기립한다. 기도시간이다.

찬찬히 본회의장을 훑어봤다. 장내를 威壓하는 권위의 상징이 먼저 눈에 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寺院모양을 한 중앙의 높다란 의자위엔 길다랗고 노르스름한 가발을 쓴 의장이 앉아있고 그 앞쪽의 4각테이블엔 약간 짧고 노란 가발을 쓰고 가운을 입은 사무총장이 앉아있다. 4角테이블위엔 國王의 黃金棒같은 「메이스」라는 커다란 金杖이 의회의 권위를 상징하듯 놓여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권위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본회의장 크기가 우리국회의 常任委회의장2개를 합친 정도나 될까, 이 광대한 富國의 하원 본회의장크기가 요만하다니… 의원들이 앉는 의자는 벤치型의 긴의자인데 거기에 어깨동무하듯 붙어앉아있다. 또 수상과 야당당수는 중앙의 4각테이블을 좌우에 마주 앉아있는데 그들의 의자란 게 조그만 우동집주인의 의자정도밖에 안되는것 같다.

회의 벽두부터 토론이시작됐다. 요즘 濠洲政街는 한창「택세이션(課稅)스캔들」에 휘말려 정부와 야당간에 연일 攻防을 벌이고 있던 참이다.

濠洲에선 근년에 세금을 줄이기위해 회사를 破産시켜 넘기는 일이 자주 생겨나 말썽이 생겼다. 어떻게보면 파산된 회사는 세금을 안내게되는 약점을 이용한 脫稅행위다. 77년부터 성행한 이행위로 생긴 國庫손실이 10억달러나 된다는것. 급기야는 왜 많은 稅源을 놓쳤느냐는 對정부비난이 터져나오고 脫稅를 조사하기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변호사 코스티간씨의 이름을 따 코스티간위원회로 불린다) 가 구성돼 최근에 보고서를 냈다. 또 勞組에대한 脫稅조사과정중 西部濠洲의 부두노조가 탈세、밀수등 엄청난 범죄조직과 관련돼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정부는 그勞組를 [illegible]하고 야당은 왜 정부가 야당얘기를 듣지않고 사태가 악화되도록 했느냐고 공격하는등 攻防이 가열되면서 議會해산、早期선거說까지 나왔다.

본회의장에선 수상과 야당당수、여야의원들이 잇달아 발언을 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몸놀림은 모두가 자연스러우나 자리를 뜨는 의원은 별로 없다.

▲헤이든노동당당수=조사위원회의 매카비와 라프란치가 濠洲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사실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6월27일 재무장관이 그들을 비난한 사실을 수상은 알고있읍니까.

▲프레이저수상=야당당수는 財務장관의 발언중 일부를 인용하고 있읍니다. 그 발언은 의회가 휴회중에 나온것인데 그것은 매카비—라프란치보고에대해 상세한 논평과 솔직한 견해를담고 있읍니다.

한참 論戰이있은후 보고서를 인용한 수상의 답변이 끝나자 7、8명의 의원이 말없이 일어선다. 발언신청이다. 그러면 의장이 먼저 일어난듯 싶은 의원을 지명한다.

▲레오·매클리의원 (노동당) =수상께선 80년 刑法의 脫稅조항에 지금같은 탈세행위를 막을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고 재무장관이 말한 사실을알고 있읍니까.

계속 이런식이다. 야당의 공세는집요하다. 야당인 노동당의원들은 자기네 당수가 발언할때는「예이—」(옳소!) 하며 시끄럽게 응원을한다. 야당의 간섭이 지나칠때면 의장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토론은 그야말로「民主議政」답게 자유스럽고 자연스럽다. 그러다가 한 야당의원이 그만 制裁의 그물에 걸렸다. 프레이저수상이 정부특히 재무장관의 입장을 옹호한직후 노동당의 듀피의원이『재무장관은 매카비—라프란치보고가 정치적 術數라고 말했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스네든의장이『홀트區출신의원 (듀피의원을말함)에게 경고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듀피의원이 다시『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소리치자 의장은 듀피의원을 의사규칙위반자로 지명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자유당의 院內총수인 제임즈·킬렌의원이 의장에게 듀피의원을 제재하지말고 사과로 대신할것을 요청했으나 의장은 그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의사규칙위반자로 몰린 듀피의원의 퇴장여부에 대해 투표결과 64對47로 可決돼 듀피의원은 퇴장당했다. 투표는 與와 野의 재석수를 세는게 전부였다.

『명령합니다. 홀트區의원에게 24시간동안 하원에서의 임무를 정지시킵니다』스네드의장의 단호한 명령이다. 요란하게 2분간 종이 울리면 듀피의원이 쫓겨난뒤 각 출입구엔 의회警士가 문을 지킨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뒤엔 또 이런 냉혹한 制裁도 있었다. 그 秋霜같던 스네든의장은 듀피의원추방령이 내린지 20여분뒤엔 잠시 대기실로 나와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온 우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배려도 잊지않았다.

濠洲下院의 본회의는 1주일중 火·水요일 하오와 木요일상오 3차례 열린다. 작년8월에 채택된 회의규칙에 의해 火·水요일은 하오1시45분、木요일은 상오10시에 開議한다. 金요일[illegible]가 많다. 우리 국회처럼 하오국회나 상오국회로 兩斷간의 논란이 없이 상·하오에 균형을 맞추어 신축성있게 하는 셈이다. 의회는 2월~6월까지의 가을회기와 8월~12월까지의 봄회기인 예산국회로 나뉜다. 회기중엔 보통 3주간 회의를 계속하고 1주일 쉰다.

開議시간 5분전이 되면 국회사무총장은 開議시간을 알리는 벨을 5분간 울리게한다. 벨이 울리고 5분내에 定足數가 안되면 의장은 회의를 연기시킨다. 그러나 開議시간전 議席은 거의다 찬다는 것이다. 회의중 의원이 정족수에 異議를 제기하면 의장은 수를 점검하고 2분내에 정족수가 안되면 다음으로 연기시켜버린다. 이것은 위원회가 열릴때도 마찬가지다.

회의는 하오5시가되면 일단 休會했다가 하오7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의장은 하오10시30분이 되면 회의 연장여부를 묻게된다.

발언시간은 議題에따라 다양하다. 예를들어 정부나 각료, 야당이 제안한 법안심의때 법안제안자나 정부대표, 야당대표의 발언은 30분, 일반의원은 20분간이며 租稅관계의안제출시는 제안자와 야당대표는 20분간, 일반의원은 10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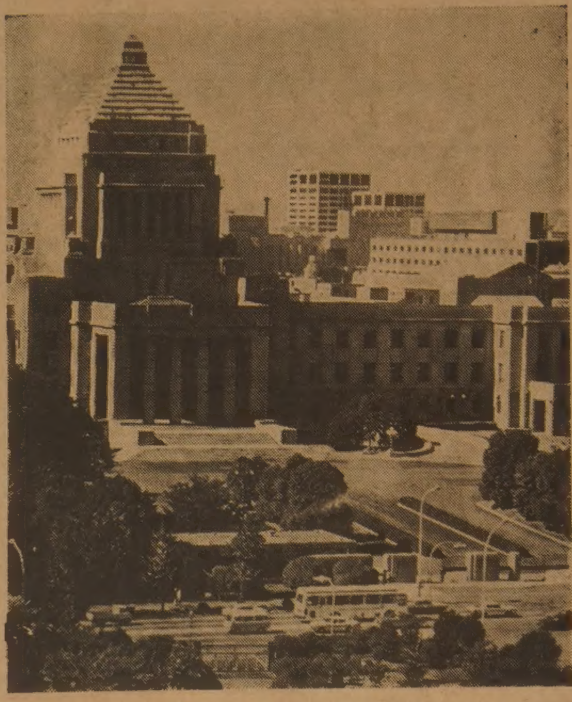
또 토론시엔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친「질문시간」이 있는데 每회의때「질문시간」은 보통 45분으로 이는 수상이나 先任각료가 결정하는게 관례다. 수상은 이「질문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나 45분이내로 제약하려할 경우는 비판을 받게된다.

본회의·위원회에 걸쳐 토론이나 발언시간은 議題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 의원들은 보통 한사람이 발언을오래 하는 것보다는 요점주의로 발언시간을 짧게해 많은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선거구민을 지나치게 의식한 인기발언이나 발언을 위한 발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언순서나 시간에 있어 야당대표에게 상당한 우선권을주고있는것이 특색이다.

한동안 눈여겨본 濠洲의 의회는 자유로우면서도 의회와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가 있고 의사규칙이 있었다. 권위를 대단히 따지는것 같으면서도 효율성과 실질을 중시하는 측면이 짙은것 같았다.

濠洲는 지금 새議事堂건립의 첫삽을 내어놓고 부지를 닦고 있다. 이제 濠洲의회는 88년에 보다 큼직한 건물로 옮기게된다. 그것이 연방정부와 의회의 기능확대를 뜻하게 될지, 어떨지는 후일또두고볼일이다.

【캔버라=趙聖鎬특파원】



◇東京中心街에 있는 日本국회의사당。1936년에 完工된 延建坪 1천5백78坪의 石造건물에는 衆·參議院으로 나눠있다。

議員·국민合心 권위높여 日本

本會議場선 반드시 뱃지착용 常委·豫決委운영 우리와 비슷

日本議會의 권위는 그야말로 대단하다. 그것은 內閣責任制라는 政治제도가 議會에 안겨주고 있는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하고있는 이유도 있지만 議會와 의원、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議會의 권능을 높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가 제도나 內規로 정하고 있는 權能제1주의는 철저하며 여기에 의원들이 무조건 따르는 자세가 의회의 권위를 높여주는 절대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議會가 스스로 권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의 제도적 장치 중에는 우선 중앙정문의 출입제한 규정을 들수있다. 지하1층, 지상3층 (중앙부분만 4층)의 石造의회건물은 衆議院과 參議院이 사이좋게 兩分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정문은 물론 한 곳뿐이다. 그런데 중앙정문은 鋼製출입문은 開院式에 참석하는 天皇과 初選의원의 첫 登院때, 그리고 國賓이 출입할때만 열리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출입문은 年3~4회 정도만 정중하게 열리며 의원들과 수상을비롯한 행정부관리및 의회직원들은 정해진 통용문만을 사용하고있다. 이는 우리의汝矣島의사당의 중앙정문이 開會중이라도열려 별다른 제한없이出入할수 있도록 되어있는것과는 다르다. 본회의장 출입문을 의원들만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는점도 우리국회와 다른점이다. 수년전 衆議院사무총장이 이규정을 모른채 출입문을통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부하직원인경위의 제지를받고 끝내 들어가지못한 일도있다. 특히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갈때 반드시 배지를 달도록 되어있다.

日本의사당은 1920년에 착공하여 16년만에 준공된 延建坪 1천5백78坪에 달하는 石造건물이다. 지금은 규모가 협소하여 곳곳에 부속건물을 갖고있지만 준공당시 日本서 둘째가는 큰 건물이었던 의사당내부중 日本의회관계자가 名所라고 자랑한곳은 중앙홀위층에 있는 天皇室. 日天皇이 의사당에 거동할때 잠시의휴식을위해 사용하는 이 天皇室은 실(絲)로 짜서 만든 기둥에 鍍金을 하는등 호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의사당건립비의 10%가 이곳에 투입되었다는 얘기다.

本會議場은 의장석을중심으로 半圓形으로 의석이 배치되어있고 교섭단체별로 의석을 배분받고 있는 점등이 汝矣島의사당 본회의장 모습과 비슷했다. 그러나 當選회수에 따라 좌석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어 多選의원을 優待하는 정치풍토가 여연했다. 이는 初選이라도 주요당직만 맡으면 제일앞에 앉는 우리와는 대조적이었고 이곳서는 비록 黨首일지라도 당선회수가 적으면 앞자리에 앉아야한다.

日本의회제도는 92년의 역사와전통을 가지고 있다. 1890년 明治헌법이 선포되자 이헌법에 따라 帝國議會가 소집되었다.

처음 帝國議會에는 貴族院과 衆議院의 兩院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天皇制국가였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議會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2차대전후 새로운 민주헌법이 제정되고 난후 명실상부한 의회제도가 정착되었다. 현재 衆議院(下院)은 5백11명의 의원으로、參議院(上院)은 2백5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內閣총리대신(首相)선출권과 先예산심의권을지니고있는 衆議院이 제1院格이어서 衆議院의원역시 參議院의원보다 우월감을 갖고있단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制憲이래 日本의 제도를 크게 도입、모방해왔기때문에 운영방식등이 거의 비슷하다. 衆·參議院의定期會(우리의 정기국회로 日本에서는 常會라 부른다)는年1백50일간으로 매년12월중에 개원하며 衆議院은 매주 火·木·金요일 하오2시에、參議院은 매주 月·水요일 상오10시에 열리게 되어있으나 開議시간이 신축성있게 조정된다.

定期會외에 임시회 (임시국회) 와 特別會가 있으며 임시회는 재해대책등을 위해 內閣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을 요구하거나 전체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되며 特別會는 의회가 해산된후 總選을 거쳐 소집되며 이때 의장및 內閣총리대신을 뽑는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運營委가 결정하며 질의자수와 질의시간도 보통 여기서 협의되며 본회의진행방법은 우리국회와 같다. 常任委의 경우 衆議院은 18개、參議院은 16개를 두고 있고 특히 衆議院에는 7개의 特委가 거의 常設化되다시피 구성되어있다. 特委는 무슨이슈가 있을때마다 구성할수있게 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災害、선거제도、석탄、물가、교통안전、北方領土、안전보장등 7개特委로 제한되어있다. 각常委의 활동은 예산심의권이없는 등 우리나라 常委와 엇비슷하나 豫算과決算만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우리나라는 特委로 매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는데 반해 常委로 되어있다.

豫決委가 열리면 首相이하 모든 각료가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는데 질의자수와 시간은 모두사전에 조정한다. 지금 우리국회는 日本 豫決委운영스타일을 도입、豫決委회의장을 개조했으며 5개 分科委로 나눠져있는 것도 같은 형태이다.

常任委는 각 소관별로 國政조사권을 갖고 특정사항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는데 증인등을 출석시킨 경우가 거의없으나 행정의 말단부분까지 조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있다는 설명이다.

또 본회의장은 반드시 禁煙토록 되어있으나 상임위는 흡연이 허용되는게 우리와 다른점이다. 모든상임위는 정부관계자와 마주보고 회의를 진행하게되어있다.

衆議院의 경우 의장은 여당인 自民黨에서 계속 맡아왔으나 부의장은 극히 짧은기간동안 한때 野黨이 담당했던적도있고 상임위원장도 한때 야당에서 맡은것을 제외하고는 自民黨이 獨占해오고있다.

의원에 대한 處遇로는 매월 歲費88만円、문서통신교통비65만円、期末手當등을받고 25년이상의 근속의원에게는 특별교통비로 매월25만円이 추가지급되고있다. 또 2명의 비서 (우리나라는 1명)를 둘수있고 우리와 달리 퇴직금제도가 있으며 議員宿舍 입주권을 제공받는등의 혜택을 받고있다. 이밖에 의원 각자에 一律的으로 의원회관사무실이 주어지고있다.

日本 의회에도 많은 請願과 진정이 몰리고 있다. 처리방법은 우리와 비슷하나 우리의 請願이 農地관계、도로정비、교량가설등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데반해 도로、복지、여관문제(각지방마다 비싼 호텔이아닌 값싼 여관을 만들도록 해달라는 내용)가 주종을 이루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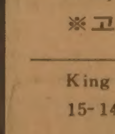
衆·參議院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본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常任委는 비공개로 진행되는게 우리와 다르고 常任委는 非會期중에도 매월 한차례 정도는 소집되어 당면문제를 심의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있다.

본회의 방청객은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통해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과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衆議院에만 年 80만명이 몰려오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학생이하의 수학여행이 대부분으로 시골村老가 대거 몰려와 구경만 하고가는 汝矣島 의사당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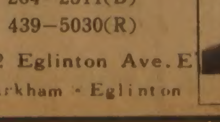
일본은 걸핏하면 衆議院이 해산되어 중의원의원의 평균재임기간은 法定임기 (4년) 의 반이넘는 2·7년정도. 衆議院이 4년임기를 만료한例는 미끼 (三木) 내각때의 72년~76년뿐이어서 얼핏보면 政情이 매우 불안하게 보이지만 『國益을 위해서는 與野가 없으며 굳이 野黨이라면 共産黨정도일뿐』이라는 지식층의 지적처럼 日本의회는 우리국회와 운영과 外形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內實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했다.

【東京=李以春특파원】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한국식 당구대를……
……원하시는 분
(코너에 구멍없음)

*아래주소로 연락바랍니다.
※고급 품질로써 봉사합니다.
King Edward Billiard Supply Ltd.
15-1421 St. James St.
Winnipeg, Man. R3H 0Y9
☎ : (204)775-808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토론토시
공 고
1982년 11월8일(월)
시의회 선거에 관하여
오는 11월8일 선거에서 당선될 시의원들에게 시행정법 1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인류를 원자무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비핵무장운동을 지지하십니까? 그리고 이 운동은 연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과 접촉, 이 운동의 목적을 일찍 달성될 수 있게 하겠읍니까?
이미 제출됐던 질문에 수정이 있었읍니다.
토이·브이·헨더슨
시 선거사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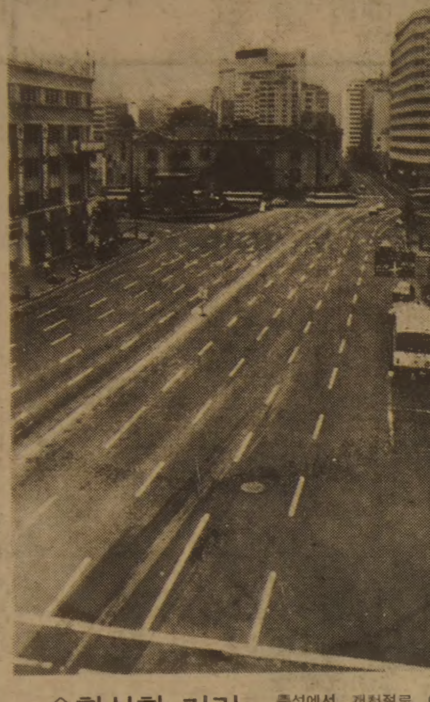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의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황금 連休… 公害없는 都心

국군의날 市街행진 20여만市民 갈채
이틀간 交通사고등 全國서 23명숨져



◇한산한 거리 추석에서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이틀날인 2일상오 2백50여만시민이 빠져나간 서울거리는 상가들도 철시, 오랜만에 번잡과 무질서와 공해가 사라지고 듬성듬성 승객을 태운 버스들만 한가롭게 오갔다. 【2일상오10시30분 한국은행앞=張啓文기자 찍음】

추석이자 국군의날인 1일 전국가정에서는 오랜만에 헤어져있던 온가족이 모여 햅쌀과 햇과일로 정성들여 마련한 제수로 차례를지낸뒤 선산을찾는 성묘길로 나서는등 분주했다.

올추석절은 3일간의 연휴가 계속된데다 가뭄끝에 대풍이 든탓인지 한층 풍성함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이날 서울거리에는 많은사람들과 차량이 빠져나가 한산했고 중심가는 모두 철시한채 가끔 길을 오가는 한복차림의 행인들이 보였다.

날씨는 쾌청했다가 하오들면서 차차 구름이 끼기시작, 大田과 濟州등지를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가위의 파란달을 구경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34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벌어진 서울에서는 하오2시부터 1시간동안에 20여만명의 시민이 南大門~鍾路·東大門사이의 연도에나와 국군의위용에 박수를 보내기도했다.

한편 30일부터 2일사이에 전국에서는 60여건의 교통사고로 16명이 숨지고 9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곳에서 화재와 연탄가스사고등으로 7명이 숨졌다.

[성묘] 이날 銅雀洞국립묘지, 忘憂里및 碧蹄, 龍仁등 묘역에는 많은 성묘객이 다녀갔다.

성묘객들은 정성껏 차려온 다과와 술을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깎았다.

碧蹄에 3만5천여명, 국립묘지 10만여명등 서울근교에서만도 모두 30여만명의성묘인파가 조상을 찾았다.

이날 하오1시께 경기坡州郡臨津閣광장에서는 통일경모회(회장 洪禎七)가 주최하는「재이북父老합동경모식」이 열리기도 했다.

[거리] 건군34돌을 기념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앞서 이날 상오8시부터 국산전투기 제1호인「제공호」가 서울·水原·大邱·光州등 9개도시를 선회, 시범비행을 벌여 눈길을 끌었으며 하오7시엔 서울南山에서 국군의날 기념불꽃놀이가 벌어져 8백여발의 폭죽이 서울하늘을 수놓기도.

[고궁·시설] 1일 어린이 대공원에는 2만여명, 昌慶苑 1만5천명, 景福宮엔 6천여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서울국제무역박람회장엔 아침부터 18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개장이래 최고인파를 기록했다.

[사건·사고] ▲1일상오 10시께 전북 金堤郡萬頃面 萬頃里 장승마을 앞길에서 金남훈(16)·홍준(7) 형제가 과속으로 달리던 群山운수택시소속 전북1가5403호(운전사 李일주·22)에 치여 동생 홍준군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남훈군은 중상을입었다.

▲이날하오1시40분께 任實郡聖壽面新村里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정용문노인(72)이 부산5가4939호 미니버스(운전사 朴주식·37)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새벽3시30분께 충북淸原郡北二面文岩里앞 국도에서 귀향객을 싣고 鳥致院으로 달리던 釜山상이용사자활촌 복지공사소속 경남5다2262호 봉고미니버스(운전사 咸영배·22)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 운전사 咸씨와 咸중식여인(29·여·충북中原郡東良面龍橋里)의 아들 金효훈군(1)등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咸여인등 1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2일상오 6시께 경남南海郡三東面彌助里808 安영자씨(45·여)집 부엌방에서 잠자던 安씨의 딸 이영순양(15·彌助여중1년)과 이더연양(20)등 자매가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내년初中等교사 4천9백명增員

문교부는 2일 학교신설, 자연감소등에 따라 부족하게 될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83학년도에 초등 6백40명, 중등 4천1백57명등 모두 4천8백97명의 교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내년에 초등교사의 수요가 1천5백여명에이를것이나 신규채용은 교육대학졸업자등 6백40명으로하고 나머지 교원은 학생수가 적은 영세학교의 통폐합으로 남게될교사로 수급을 맞추며 중등교원은 모두 신규채용으로부족교사를채우기로했다.

이같은 수급계획에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방에 있는 초등교사의 대규모 서울전입이 있게될 전망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교사증원을 위해 83년예산에 증원분 교원봉급 1천2백98억원을 계상해놓고있다.

이같은 증원으로 내년에 국공립초등교원은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12만5천4백53명, 국공립 중등교원은 6·8%증가된 6만3백85명이 된다.

그날의 惡夢씻고 희생자合同茶禮
宮柳에도 大豊추석

경찰관 총기난동사건으로 56명이 숨진 경남宜寧郡宮柳面주민들은 1일 추석을맞아 합동차례를 지내고 서로를 위로했다.

주민들은 악몽같은 참사의 아픔을딛고 예년에없는 대풍을맞아 햅쌀과 과일로 희생자들의 제수를 마련, 넋을위로했다.

한편 宮村·宮柳국교와 宜東중학생들은 당시 숨진 文炳敦군(8)등 4명의 국교생과 3명의 중학생들의 묘를찾아 급우들의 명복을 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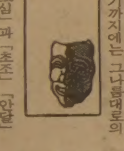
야생벌쏘여 9명앓아

【光州】성묘를 하기위해 산에 오르던 성묘객 9명이 야생벌에 쏘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1일 하오2시께 전남 光州市北區文化洞 각화마을앞 야산에 성묘를 가던 李相澤씨(53·光州市東區서2동467)와 이씨의 딸 永蓮양(19)등 부녀가 벌떼에 머리, 어깨, 엉덩이등 20여군데를 쏘여 전남대의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또 이날하오1시께 전남潭陽郡昌平面廣德里뒷산에서도 李順英양(9)과 이양의동생 順英양(8)등 자매가 말벌떼에 20여군데를 쏘여 전남의대병원에입원, 치료를받고있다.

「짱구 박사」
首都서울 治安총책 李海龜국장
「분위기治安論」…"대목 큰事故없어 다행"



수도서울의 치안총책인 李海龜시경국장(45·사진)은 「짱구」다. 머리의 앞이나 뒤만 큰것이 아니라 「앞뒤」가 다커서 부하들은 그를 「짱구박사」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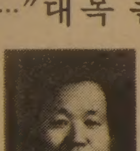
추석연휴기간인 2일 하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경비차 나갔다가 돌아오는 「짱구박사」를 만났더니 「큰사고가 없어 다행입니다」했다.

해마다 추석이나 연말이면 강도나 대형안전사고등이 발생했던것을 생각하면 그가 기자를 만나자 마자 첫인사가 그런내용인것이 이해가간다.

그러나 李국장이 이처럼 만족한 표정을 짓기까지에는 그나름대로의 특유한 「소심」과 「초조」「안달」이 숨겨져 있다. 사실 일선치안관 경험이라곤 경기도경국장(77~79년)뿐으로, 특히 서울시내의 경찰서장직을 한번도 거치지 않은 그가 시경국장직을 받자 주위에서는 실전경험이 적은 이 참모형 국장을 은근히 걱정스럽게 지켜봤었다.

사실 그는 일선의 관록이 없을뿐만 아니라 체위나 용모에서도 수만경찰을 주무르는 보스형의 냄새를 풍기지 못했다.

그러나 생각이 깊고 논리가 정연하며 추진력이 강한데다가 時流판단이 빠른 지모형임이 그뒤 새삼스럽게 거론됐다. 장점으로 단점을극복한 성공사례라할까.



李국장은 취임후부터 「분위기 치안론」을 펴왔다. 사회분위기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들어 범죄예방을 巨視的으로처리하는 지휘방향이었는데 이것이 時俗의 분위기와 맞아 떨어졌다고 볼수밖에 없게 됐다.

큰사건없는 秋夕은 사실 이례적인것이고 그것은 공짜로 떨어진 선물은 아닌것이다.

李국장은 통금해제후 처음맞는추석인데다 연3일이 연휴여서 바짝 긴장, 그동안 줄곧 국장실에서 잤다.

국장이 사무실에서 잔다고 사고나 강력사건이 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다.

1일밤에도 고위층으로부터 수도서울의 치안점검상태에대해 칭찬을 받아 오랜만에 얼굴이 붉어진 (감정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李국장은 새경찰상에 대한 일가견까지 펴고 있었다.

「분위기」에서 승세를 탄 그가 새경찰상이 서울시내의 2만5천여일선경찰에게도 모두 먹혀들게할수있을지는 한번두고 볼일이다. 【朴貞洙기자】

昌慶苑 동물가족들도
풍성한 가을맞이
올들어 16種 68마리낳아 최대慶事
내년 서울大公園 이사앞두고 「子孫풍년」

昌慶苑동물가족이 개원이래 73년만에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가을을 맞이했다. 모두 1백32종에 달하는 동물가족중 16종이 올들어 새끼를 낳기시작, 2일현재 동갑내기식구가 무려68마리나 늘어난것.

이처럼 새동물가족이 부쩍 는것은 昌慶苑사상 최고의기록이기도하지만 내년이면 果川의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게 돼있어 사육사들은 『이사하기전에 친정에서 미리 새끼를 낳고싶었던게 아니냐』면서 꿈보다 좋은 해몽에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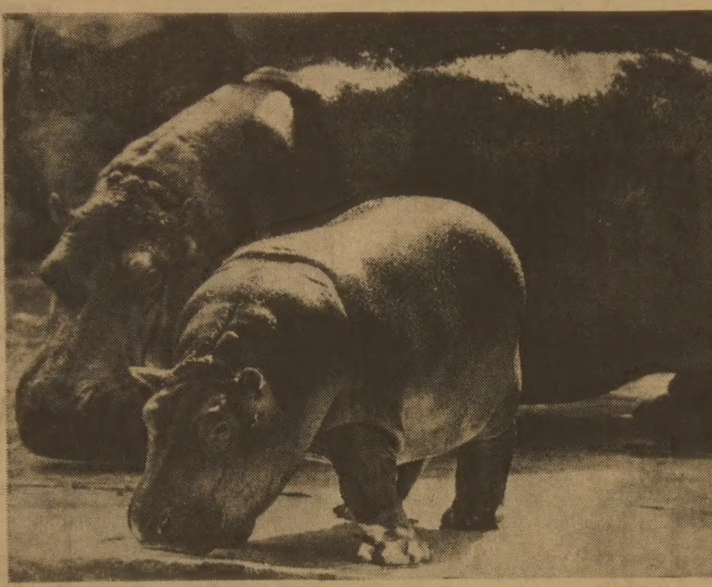
올해 태어난2세들은 병치레 한번없이 모두 토실토실 건강하게 자라나 추석연휴에 찾아온 2만5천여 시민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동물가족의 경사중 하이라이트는 역시 최다번식기록을 갖고있는 하마의 순산. 올해 35세나 된 어미 河順이가 그동안 3년동안이나 태기가없어 『단산을 한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했으나 지난 2월 뜻밖에 「만득이」를 낳아 57년입주이래 10남매를 채우는 대기록을 세웠다.

수태기간이 2백27일이나 되는 어미하마는 사람의 나이로 쳐도 수임하기에는 고령이었다. 난산을 하지 않을까 한는게 사육사들의 걱정이었던 모양인데 여보란듯이 똘똘한 수놈을 낳았고 늦게 둔 막내가 너무 귀여워서인지 지금도 사람의 그림자만 얼씬거려도 큰 몸뚱이로 새끼를 가린다.

또 한배에 1마리의 새끼만 낳는 흰사슴이 쌍둥이를 낳은것도 화제의 하나였다.

황홀한 핑크빛 깃털과 군무(群舞)로 관람객을 사로잡아온 홍학무리가 올들어 7마리의 새끼를 깐것도 사육사들을 놀라게했다. 지난69년 1백마리를 도입했으나 80년에 처음으로 2마리를부화했을뿐 대를 잇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예기치않은 새끼를 깐것.



◇하마母子의 다정한 한때 가을의 맑은 햇살을받으며 산책을 즐기는 하마모자。 어미하마는 늦게둔 「만득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듯 한시도 떨어지질않는다。

30代의 河順이 노령불구 10男妹채워
흰사슴·紅鶴·쇠재두루미도 뒤질새라
호랑이·두루미는 後孫없어 飼育師들 애태워

이밖에 동아시아와 東아프리카가원산인 쇠재두루미도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쇠재두루미의 이번 번식은 지난69년 입주후 겨우2번째여서 이제 웬 번이나는게 사육사들의 반응이다.

동물가족은 모두 1백32종 7백89마리. 태부분은 昌慶苑에서 후손을보았는데 이중에는 한번도 새끼를 낳지못한 것도있어 사육사들을 안타깝게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 昌慶苑에는 현재 수놈1마리와 암놈 3마리등 4마리의 두루미가 큰물새 우리에 수용돼있는데 수놈은 지난56년 강원도에서 잡혀 옮겨와 조류중에서는 제일 고참이다.

그러나 두루미는 해마다 부화가 불가능한 무정란만 한개씩 낳을 뿐이었다.

수놈이 사로 잡힐때 다친 날개의 부상때문에 번식이 안되는 것 같다고 풀이하는 사람도있다.

금년에도 두루미는 안간힘을 쓰며 신방을 차렸으나 결국 무정란을 낳고말았다.

두루미는 지난 75년에도 수놈이 한마리 들어와 대를 이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놈도 사고로다리가 절단돼 의족까지 해주었지만 한번도 번식하지못하고 병사해버렸다.

맹수류중에서는 호랑이가 아직 새끼를 한번도 낳지못했다. 호랑이는 암놈이 발정기때 합사, 번식을 유도한다. 지난 73년에 동시에 발정한 암놈 2마리가 서로 시앗싸움을 벌이다 수놈에게 물려죽었고, 지난 75년에는 암놈인 금강호가 수놈의 얼굴을 어설프게 할퀴어 격분한 수놈이 합사직후 물어죽였다.

이같은 사고이후 昌慶苑측은 신중히 합사를시켜왔지만 서로 거들떠보지도 않아 『내손으로 한번 호랑이새끼를받아 보고싶다』는사육사들의염원을 한번도 들어주지않았다.

한 사육사는 『동물들이 떠나기전에 친정집에서 자식을 낳고싶어 순산 러시가 이루어진것같다』고 풀이하면서 정든 터전을 떠나게된것을못내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한편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이같은 경사」에대해 昌慶苑측은 떠나기전에 모두 성대한 합동 돌잔치를 마련해주기로 했으며 온국민의 사랑을받던 동물가족중 그동안 숨져나간 동물들에게도 합동위령제를 올려줄것을 계획하고 있다. 【鄭英鎬기자】

省墓하러 집비운새 金品6백만원 털려

【大邱】1일 하오 7시30분께 대구 壽城區 壽城洞2街 3 희망바드 아파트 나동 102호 홍전표씨(58·大邱 투자금융주식회사 상무)집에 도둑이들어 현금 3백만원과 귀금속 11점등 모두 6백90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홍씨는 이날상오 10시께 가족들과함께 성묘를 갔다가 이날 저녁 귀가해보니 현관출입문과 안방문이 열려져있었으며 화장대서랍속에 넣어두었던 현금3백만원과 6·5부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백만원) 1개등 귀금속 11점을 비롯 모두 6백90만원어치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것이다.【聯】

染織회사에 도둑 1억원든金庫훔쳐

【南楊州】30일새벽2시부터 4시 사이에 경기南楊州郡九里邑葛梅2里181 梨花염직(주)(대표 吳炳載·43) 사무실에 도둑이들어 현금1천58만여원과 5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7천5백29만여원짜리 은행도어음 1장등 모두 9천88만3천여원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聯】

同居남자 가버리자 本妻딸殺害해 유기
30代여인 自首

【華城】3년간 동거해온 남자가 본처에게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은 여인이 본처의 딸을 죽여 야산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도 華城경찰서에 따르면 安玉俊여인(31·경기도城南市太平洞)은 지난29일 3년간 동거해오던 李모씨(31·城南市城南洞)가 장사밑천 50만원을 몽구해온다고 마구 때린후 본처에게 돌아가버리자 이날하오2시께 李씨의 장녀 正熙양(6)을 유인, 華城郡牛月面月岩3里야산에서 목을 졸라 죽이고 옷을 벗겨 풀숲에 알몸으로 버린뒤 李양의옷은 서울瑞草洞김장쓰레기장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30일상오11시께 서울冠岳경찰서에 자수했다.【聯】

오늘 開天節 전국서 紀念式

오늘(3일)은 단군이 우리나라를 개국한지 4천3백14돌이되는 개천절.

이날 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 소강당에서는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대표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으며 전국각시도에서도 기념식을갖고 단군의 건국이념을 되새긴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연휴3일째인 이날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후 차차 개겠으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아침한때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다.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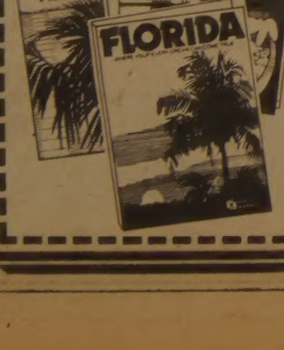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저를 아끼시는 뭇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재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정번헌 배상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1982~83학년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개강안내

◇기 간: 1982년 9월25일부터 1983년6월18일까지(32주간)
◇시 간: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장 소: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DALE AVE. (쎄인·클레어×영)
◇자 격: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프로그램: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기초반)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연구반)
◇지도내용: 기초반—기본동작 I, 화관무, 아리랑환상곡, 즉흥무
연구반—기본동작 II·III, 부채춤, 살풀이, 탈춤, 장고춤
◇복 장: 움직이기에 편한 복장과 덧신
◇수 업 료: 32주간에 $160
4주간씩 나누어 등록하실 경우(시간당 10달러)
◇신청장소: 위의 장소에서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접수.
◇문의전화: 김미영: 499—5079

高麗청자에 動物뼈 성분

KBS·서울大요업센터등서 조사

"釉藥·바탕흙서 燐발견 놀라와"

「秘色」의秘密은 胎土에섞인 酸化鐵

原料선정·配合비율·불이 숙제

◇중국인들 조차 놀라와 마지 않았던 고려청자 秘色의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 고려청자에는 동물뼈로 보이는 인성분들이 함유돼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들조차도 「秘色」이라하여 놀라와 마지않던 고려청자의 신비는 오늘날까지도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있다. 최근 끊어진 청자전통의 脈을 잇기 위해 많은 도예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고려청자전성기때의 그윽한 청자빛을 완전히 재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비의 베일속에 가리워져 있는 고려청자의 재료 (釉藥)과 바탕흙(胎土)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있을까. 무슨 조화로 그토록 신비로운 빛깔을 낼수 있었을까.

KBS는 서울大요업센터,延世大지질학과,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려청자를 과학적으로 분석,그결과를 20일 하오10시부터 1시간동안 제1TV의 월요기획시간을 통해 방영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고려청자의 釉藥과바탕흙은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산화철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물뼈에서 얻어진것으로 추측되는 인이 포함돼 있다는것.

청자원료의 화학분석을 맡은 서울大 林應植교수(요업공학과)는 지금까지 알고있던것과는 달리 산화철함량이 유약보다 태토에 많다는 점이 특이하며 청자의 發色은 바탕흙에 함유된 철분이 높은 열로인해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형성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林교수는 도요지 발굴현장에서 수습한 재와 유약에 인이 포함된것은 놀라운일이며 고려때 도공들은 동물뼈에서 추출한 인성분으로 에밀레종의 전설에서 볼수있는것처럼 청자빛깔을조절했을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KBS보도본부가 고려청자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유약과 태토등 성분을 밝혀낸것은 앞으로 청자재현을하는데 큰도움을 줄것으로보인다.

이번 조사단은 청자가마가 가장 밀집된 전남康津郡大口面 龍雲里와 沙堂里일대의 흙과 돌들을 함께 분석했는데 고려때는 근처에서 쉽게 채취할수 있는 응회암 운적토와 장석토등의 점토로 유약과 태토를 만들었음을 규명해냈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공동분석을 실시한 延世大李大馨교수는 이지방의 흙은 곧바로 청자의 胎土와 유약으로 사용됐는데도 청자를 재현하지 못하는 까닭은 원료선정과 배합비율 그리고 불의 문제가 정확히 해결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요기획을 통해 청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것은 찬연한 도자기문화를 가지고있는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적 발굴과 도자기공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공헌하게될 것으로 평가된다. 【李忠南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31>

미리 온 아이 ㉞

그런 끔찍한 소리는 옛날기가 잘못이였다. 실상 고아원 아이가 어떻다는 건 동네사람보다 오목이가 더 잘알고있었다. 아이는 정말 고아같았다.

오목이의 배가 보름달처럼 부풀어오름에 따라 일환이의 눈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아이를 밀어내고 있었다. 오목이는 자다가도 놀라서 아이를 더듬어 안고 떨었다. 언젠가는 그가 눈길로만 밀어내지않고 행동으로 아기를 밀어낼것 같은 불길한 예감때문이었다.

몸안에서 날로 힘세어지는 태아의 발길질조차도 몸밖의 아비와 합세해서 형을 몰아내려는 악의에찬 시위처럼 여겨질때도 있었다.

오목이는 줄기차게 고아원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 생각에 넋을 빼앗겨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넋나간 사람 같았다.

그녀는 또 고아원과 함께 그녀를 고아원에 던졌을 그녀의 어머니 생각을 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그립지 않았다. 그녀의 전신은 결코 난리통에 길을 잃은 양가의 귀염둥이 딸이 아니었다. 구박받다못해 고아원으로 던져져야했던 천덕꾸러기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박대하다하다 드디어 고아를 만든 끔찍한 여자였다.

그렇게 생각해내려도 생각나지않던 어머니가 끔찍한모습으로 다가와왔다. 이제 오목이는 자기의 피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느꼈다. 그건 끔찍한 피였지만 거부할수 없었다. 그녀도 할수있을것 같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녀 역시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 버릴수 있을것 같았다.

피는 못속이거던, 더군다나 더러운 피는.

그녀는 이렇게 자신에게 악랄한 냉소를 퍼부었다. 그러나 실은 자신은 쏙빠지고 그 자신의 피속에서 느닷없이 되살아난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속셈이었다.

어느날밤 그녀는 초저녁잠이 깊이 든 아이를 들쳐업었다. 아이는 벌써 두돌을 넘기고 있었고, 배는 다시 울씨년스러운 감청이었다.

낮부터 미리 두터운 겨울옷으로 껴입혀놓은 아이는 배가 만삭인 그녀에겐 과한 짐이었다. 업은두손을 아이의 엉덩이밑에서 맞잡기도 힘겨웠다.

그러나 오목이는 엄마전부터 은밀히 염탐해놓은 고아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렸다.

그녀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넋은 나가고 대신 어머니의 넋이 들어앉았다고간간이 생각하는게고작이었다.

고아원은 그녀가 사는 산동네를 시내와는 반대방향으로 넘어가서 한참이나 내려간 산기슭에 있었다. 규모가 너무 큰 고아원인게 마음에 걸렸지만 언덕에서 고아원 마당을 훤히 들여다볼수있어서 좋았다.

그녀는 아이의 운명보다는 앞으로 매일같이 그 언덕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여러아이중에서 단 하나의 아이를 찾아내어 그뒤를 좇을 자신의 운명에 더많은 눈물을 흘리며 달음질을 계속했다.

낮동안 아이들이 뛰놀던마당은 썰렁했고 몇개 안되는 놀이틀의 그림자만이 달빛에 얼기설기 누워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없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제 집 드나들듯 익숙하게 현관문을 피해 뒤로 돌았다. 불빛이 희미한 창밑을 돌아 뒤란으로 난 빈지문을 찾아냈다. 빈지문은 가볍게 열렸고 그 안은 부엌이었다. 그녀는 부엌안에 아이를 포대기채 내려놓고 그곳을 돌아나왔다.

세계 남자排球 개막…熱戰 13일

한국,"장대"핀란드 꺾었다

세트마다 시소거듭 大激戰

3-1辛勝…첫고비 넘겨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2日=聯合】 한국남자배구가 장신의 핀란드를 꺾고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서 1승을 올렸다. 한국은 2일 상오(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서 개막된 대회첫날 예선 E조 첫경기서 핀란드와 매세트 시소를 거듭한 격전끝에 3-1로 신승, 준결승리그진출을 위한 첫 고비를 넘겼다.

유럽최장신팀으로 2m가 넘는 선수들이 여러명있는핀란드를 맞아 한국은 초반 힘든경기를 벌였다. 한국은 姜萬守 金浩哲 柳重卓 李鍾敬 張允昌 韓壯錫을 스타팅멤버로 기용,초반 상대블로킹에 막혀 고전하다가 듀스끝에 첫세트를 16-14로 따냈다.

한국은 제2세트부터 서서히 페이스를찾아 세터 金浩哲의 토스를 柳重卓 韓壯錫등이 속공으로 연결,15-12로 제2세트도 이겨 2-0으로 앞섰다. 핀란드는 3세트서 강스파이크로 한국수비진을교란,한세트를 만회했다.

그러나한국은제4세트서張允昌 李鍾敬의맹활약으로 15-11로 승리,게임을 마무리했다.

지역예선을 거친 세계강호 24개국이 참가한 이번대회는 6개조 예선리그를거친뒤 각조상위 2개팀씩12개팀이 다시 2개조 준결승 리그를 갖게된다.

한국은 3일새벽 프랑스와 4일새벽 中共과 예선마지막경기를 치르게 된다.

◇첫날전적

▲E조

한국 3 (15-11 14-16 15-12 16-14) 1 핀란드

중공 3-0 프랑스

◇조편성

▲A조=아르헨티나 일본 멕시코 튀니지 ▲B조=소련 불가리아 미국 칠레 ▲C조=이탈리아 동독 캐나다 호주 ▲D조=쿠바 폴란드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E조=한국 중공 프랑스 핀란드 ▲F조=체코 브라질 리비아 이라크

張允昌·李鍾敬 맹활약, 오늘 佛과2차전

◇3軍사관학교 체육대회

0-0 무승부로끝난 육사-해사의 축구경기. 제2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2일하오 서울운동장서 개막,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3사체전서는 축구, 럭비·풋볼, 육상(번외)등 3종목경기가 펼쳐진다.

檀大,단체우승 大學部

全國씨름선수권

【大邱】제3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가 1일 추석을맞아 이곳 시민운동장에서 개막,檀國大는 東亞大를 4대3으로 제압하고 4년만에 대학부단체전 패권을 탈환했다. 또개인전에서는 박종배(경상대)가 장용철(단국대)에 2-1로 이겨 우승했다.

◇첫날전적

▲중등부단체결승 부평 7-0 영신

▲동개인 김재천(강릉) 2-1 이현석(한영)

▲고등부개인결승 곽동현(영신고) 2-1 이종직(한영고)

▲대학단체결승 단국대 3-3 동아대 【勝】

▲동개인 박종배(경상대) 2-1 장용철(단국대)

아시아青少年농구 남여代表팀壯途에

제7회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3일~17일·마닐라)에 출전하는남녀선수단31명(임원7·선수24)이 李康稙단장 인솔로 2일상오9시 KAL편으로 떠났다.

이번대회 남자부에는 16개국이 출전,A·B조로 나누어 예선리그를벌인뒤 상위3개팀씩 6팀이 라운드로빈시스템(예선전적을 안고 싸우는방식)에 의해 결승리그로 패권을 가린다.

B조에 편성된 한국남자팀은 홍콩 필리핀과함께 결승리그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A조의 中共·日本과함께 우승을 다툴것으로 보인다.

여자부에서는 한국과 中共이 패권다툼을 벌일것으로 분석되는데 中共은 아시아제1의 장신센터인 陳月芳(2m4)과 柳青(1m83)이 이번대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밝혀져 2연패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고있다.

◇출전팀 ▲남자A조=中共 사우디아라비아 日本 바레인 말레이지아 印度 홍콩 아랍에미리트공화국 ▲B조=한국 필리핀 泰國 쿠웨이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란 카타르 ▲여자부=한국 中共 日本 필리핀 말레이지아 홍콩 印度

가요계 話題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청년이 우리말로 된 노래를 취입,가수로 데뷔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실로 말하고픈 마음」「내마음의 주인」「나의 진희」등 한국적인 사랑을 주제로 자신이 작사·작곡한 6곡과 「눈물젖은 두만강」「나는 어떡하라구」「님은 먼곳에」등을 부른 웨인·훼린씨(26)가 화제의 미국인가수. 美노드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했다.

『한국가요는 정감이 담겨있고 애절한 맛이 있어 마음을 녹여주어요』

76년부터 3년간 교환생으로 延世大에서 한국어를 배워 우리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는 한국인의 다정다감한 마음이 노래에도 짙들여 있는것 같다고 말한다. 이번 발표한 노래들은 거의 자신의 체험을 표현한 것인데 특히 「나의 진희」는 延世大재학중 사랑했던 여학생과의 이별을 노래한 것이라고.

자신이 직접 편곡·녹음, 기타 드럼의 연주까지 맡는등 정성을 다했다고 밝힌 그는 계속 한국에남아 가수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한다. 『보신탕도 즐겨먹는다며 『맛 있어서라기보다는 몸에 좋다고해서 자주 먹는다』고 익살떨기도. 미국인이 국내가요계에 데뷔한 것은 웨인씨가 처음이다.

제14기 名人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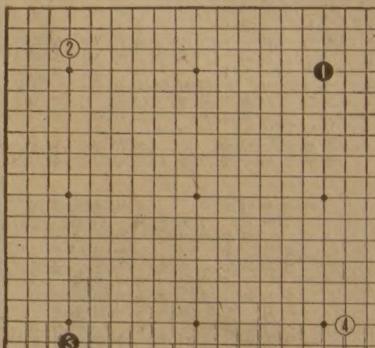
挑战者决定리그

제14기 本選개막

第1局第1譜 1~4 (각5시간·덤4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勳



제14기 名人戰예선은 예에따라 3명의 새멤버를 뽑은데서 종결, 이제 도전자를 선발하기위한 7명의 풀리그가 개시되었다.

徐奉洙7단 河燦錫7단 張秀英6단 姜勳4단등 시드組 자동참자와 예선통과자인 盧永夏7단 徐能旭6단 李相勳4단등인데 이중 盧7단은 재작년에 탈락했다가 1년걸러 부활했고 徐6단과 李4단은 名人戰에 처음 출전하게된 새얼굴이다.

제13기에 이어 이번에도 쟁쟁한 멤버로 짜여진 때문에 과연 누가 曺薰鉉名人에 도전하게 될는지 예측불허. 전례없는 각축이 벌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지난해의 본선을 대충 훑고 하면 우선 河7단에 1패를 당한 徐7단이 잔여5국을 전승하여 도전자가 되었음은 역시 그저력의 소치이므로 그렇다하고 姜4단이 도처럼 전승가도를 달리다가 대국일자의 연락차질로 부전패한일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河7단도 분투했던 사고로 부전패를 자초하여 최고전21국중 2국이나 빠진것은 뭐니뭐니해도 팬들에 대하여 미안한일이 아닐수없다.

올해는 추호의 하자도없이 전원이 힘을 기울여 만족스러운 가작을 보여줄 것으로 믿고 기대를 크게 걸어보자.

우선청소년기예화의 대결로 스타트부터 열전이 예상된다. 【一石】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는 12일(화)에 브로드뷰-그린웃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있다.

캐나다역사상 지금처럼 높은 실업율, 이자율, 모기지이자율등 어려운 때가 없었고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던 때도 없었다.

현 연방정부가 이나라의 경제를 정지상태로 만들었다.

보수당(PC)은 이같은 오늘날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거나 캐나다 밖의 영향 때문이라고만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가에 대한 신념을 회복시킬 해답을 가졌다.

공식적으로는 유일한 야당캐나다보수당(PC)에 투표하시오.

브로드뷰-그린웃 선거구의 우리 후보 빌·패잇시스(Bill Fatsis)씨에게 한 표를 던져 주십시오. 그는 "브로드뷰-그린웃 지역의 복합문화 성격은 이나라의 정치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P C

이것은 캐나다보수당의 멧시지입니다.

주간女性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658½ BLOOR ST. W.
☎ : 537-0432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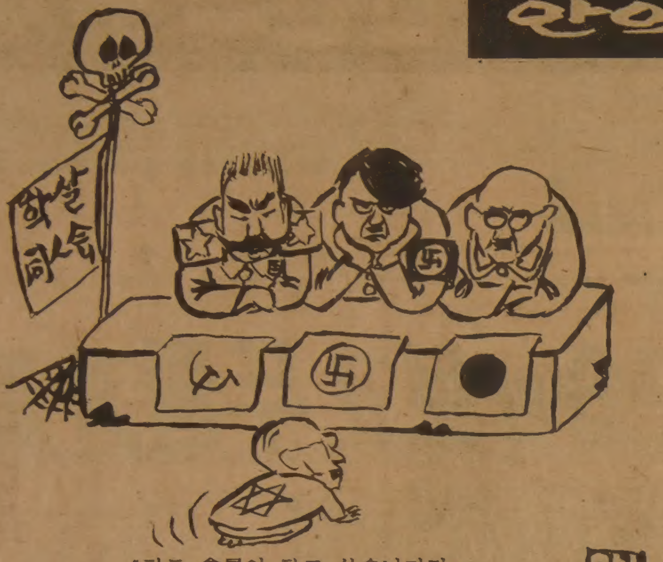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저도 會員이 되고 싶습니다만…"

"추석은 꼭 쇠야 하는전가요? 글쎄 말이다…"

암살된 전 비틀즈 단원 존·레넌의 미망인 오노·요꼬、미국의 선박왕 다니엘·루드위그、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보브·호프 그리고 미국인 투자가 메이어·랜스키、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그 해답은 이들 모두가 최근 美 포브즈지가 선정、발표한 미국내 4백대부호들 중에 끼여있다는 점이다。

존·레넌의 未亡人 오노·요꼬 코미디언 보브 호프도 끼여

美 포브즈誌 選定 美國의 400大富豪

1位 船舶王 루드위그…랜스키도 포함 異彩

◇오노·요꼬

◇보브·호프

話題

해운업으로치부、20억달러를 모은 루드위그씨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이 새로운 뉴스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 잡지가 공개한 5백대부호명단 안에 포함된 다른 이름들 중에는 예상외의 이름들이 포함되어있다。

오노·요꼬는 1억5천만달러의 재산을、보브·호프는 연예활동을 통한 수입 외에도 석유 및 부동산투자로 2억8천만달러의 재산을 갖고있으며 랜스키는 약 1억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멘트·하우스로 돈을 번 보브·구치오네는 약 2억달러의 재산을、영화 스타·워즈시리즈를 만든 조지·루카스와 금융가 로버트·베스코는 각각 1억달러이상의 재산을 갖고있다。

이들을 제외한다면 4백명의 부호명단에 낀 다른 인물들은 이미 널리 예상됐던 사람들이다。

이들 4백대부호 명단의 도처에 헌트가、록펠러가、뒤퐁가등 재벌가문의 가족들 이름이 발견된다。

사실상 이들 4백명의 부호들중 3분의 1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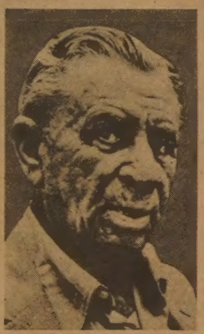
이 4백대부호명단의 최선두를 차지한 사람은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펄프공장을 건설하려다 10억달러를 날렸으나 여전히 20억달러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루드위그이다。

이 4백명중 최하위를 차지한 사람은 애플·컴퓨터사를 소유하고 있는 아르마스·마르쿨라(9천1백만 달러)이다。

◇록펠러·데이비드

◇록펠러·넬슨·A

◇에드워드·프레드릭



◇메이어·랜스키

家門別 ①뒤퐁 30명 ②록펠러 13명 ③헌트 11명

州別론 뉴욕 83명 으뜸、2위 텍사스 65명

10億달러 이상 8명…3개주는 한명도 없고

이들의 주별로는 뉴욕주가 83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텍사스주(65명)、캘리포니아주(57명)、플로리다주(22명)、델라웨어주 (18명)、펜실베이니아주(17명)、일리노이주(15명)、오하이오주(11명)의 순이다。

그리고 대부호가 전혀없는 9개주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남부의 앨라배마주、미시시피주、노드캐롤라이나주등3개주와 중부농업주들인 아이오와주、노드다코타주、사우드다코타주등 3개주및 북부의 몬태나주、유타주、알래스카주등 3개주이다。

다른 주들에 비해 면적이 좁은 델라웨어주가 이 부호명단의 상위를 차지한 것은 얼핏 볼때 놀라운 것이나 사실을 알고 보면 놀랄일이 못된다。그 까닭은 델라웨어주출신 18명 전원이 뒤퐁화학공업에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재벌가문 출신별로는 뒤퐁가가 30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록펠러가(13명)、헌트가(11명)의 순이다。

그러나 재벌가문중 가장 부유한 가문은 전설적인 텍사스 오일왕 H·L·헌트의 후손인 헌트가이다。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5명이 헌트가 출신들이다。

전원 댈라스에 살고 있는 이들 5명은 마거리트·헌트·힐、캐롤라인·헌트·쉘코프、라마르·헌트、윌리엄·허버트·헌트、그리고 넬슨·벙커·헌트이다。

이들외에 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8명은 루드위그(뉴욕시)를 비롯、고든·피터·게티(샌프란시스코)、페리·리처드슨·배스、시드·리처드·배스(텍사스주)、필립·안슈츠(덴버)、포레스트·마즈(라스베이가스)、데이비드·패거드(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마빈·데이비스(덴버)이다。

이들 13명중 10명이 석유산업으로 돈을 벌었으며 나머지 3명중 루드위그는 해운업으로、마즈는 제과업으로、패거드는 휴레트·패거드전자업체의 운영으로 각각 돈을 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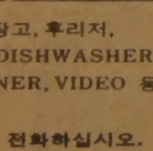
4백대 부호들중 석유산업으로 부자가된 사람이 70명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부동산업(64명)과 기타 각종 산업(50명)의 순이며 출판업과 방송으로 축재한 사람은 49명이고 금융·투자업은 35명、농업·식품제조업이 20명、전자산업이16명이다。

포브즈지에 따르면 이처럼 각종 산업분야에서 거금을 번 이들 부호들이 그들의 재산중 일부를 자선사업에 바치고있으나 대부분의 재산은 그들의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해 재투자되거나 주식및 공채매입에 사용되며 또는 새사업을 벌이는데 투자된다。

포브즈지는 또 이 잡지가 선정한 4백대 대부호 명단이 권위있고 아주 정확한것이라기 보다는 믿을만한 정보에 입각하여 잠정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욕=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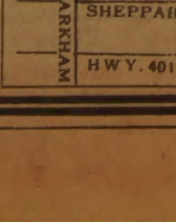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김명숙회계사무소

이전 공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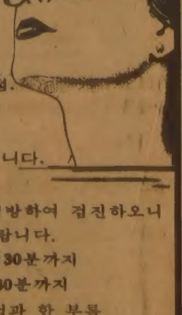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 회계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명 숙 배

이전장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블루아지점 2층)
☎ : (B)534-3760, (R)669-2710

블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압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가을 미각을 돋구는 버섯에 독버섯이 섞여들어 이를 먹고 목숨을 잃거나 신음중인 사람들이 적지않다. 堤川·丹陽일대에서만도 하루 10~15명씩이 독버섯 중독에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주 「기자 수첩」은 청량음료를 생수인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는 「一和생수」, 전경대원이 입감차들에게 단체기압을 넣었던 과잉행위, 맥주홀의 출연 연예인 과대광고등 현혹과 월권을 추적했다.

<그림·楊大雄>

바람난 아내 찾는다고
男子 팔짱낀 女子 뒷 모습만 보고 두들겨 패……

毒버섯 중독 늘어나

■毒버섯 선별법 계몽

▲가을철로 접어 들면서 忠北 堤川·丹陽지방에서는 독버섯을 먹고 일가족이 중독되거나 독버섯 중독으로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달아 주목되고 있다.

이 지방 시장마다엔 싸리버섯을 비롯, 각종 식용버섯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버섯채취업자들이 식용버섯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독버섯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무체입하게 시장에 내다 팔거나, 독버섯 선별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독버섯을 따다 반찬을 해 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5일 丹陽군적성면기동리 전병학씨(47)등 6명의 가족들은 산에서 따온 독버섯을 먹고 전씨와 둘째아들 용학군(10)이 심한 복통을 일으켜 제천시 중앙로1가 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용학군은 숨지고 아버지 전씨도 중태다.

또 堤川시명서동2통4반 장정진씨(37)의 가족4명이 저녁식사때 시장에서 싸리버섯을 사다 반찬을 만들어먹고 장씨의 부인 이종숙여인(35)과 장녀 용희양(10)이 독버섯 중독을 일으켜 증상이 심한 용희양만 지난6일 원주기독교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이날 하오2시께 숨졌다.

이밖에 독버섯을 먹고 중독증세를 느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堤川·丹陽지방에만도 하루 10~15명씩이나 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堤川市와 丹陽郡은 독버섯 피해를 막기위해 독버섯 선별법을 계몽하는 한편 독버섯을 판 상인들을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화학탄산가스 청량음료를 生水로팔아

▲보사부는 화학탄산가스를 가미해서 제조한 청량음료를 생수인것처럼 선전하고있는 주식회사 一和에 과대광고시정명령을내렸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주식회사 一和에서 「일화생수」라는 이름으로 허가받아 생산판매하는 청량음료는 화학탄산가스를 가미한 청량음료인데도 신문과 방송광고를 통해 「일화생수는 각종 미네랄과 자연탄산의 알칼리성 음료인 생수」라고 선전하고있어 취해진것이다.

보사부 식품관계자는 『자연생수의 시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주식회사 一和에서 마치 자연생수인것처럼 과대 광고함으로써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시정지시를 내렸다』면서 이런내용의 광고를 계속할경우 생산중지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경대원이 고압적인 기압

■토끼뜀·원산폭격

▲전경대원들의 고압적인 근무자세를 지적하는 진정이 관계기관에 잇닿고 있다.

지난7일하오4시께 서울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趙재건일경이 과일 행상을 하다 적발돼 구류처분을 받고 입감된 金용수씨(26·서울 구로구대림1동)등 남자입감자 22명에게 유치장기강을 잡는다며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하고 30분간에 걸쳐 속칭 「토끼뜀」과 「원산폭격」이라는 심한 기압을 줬다는것.

조일경의 가혹행위는 구류를 살고나온 金씨 등이 16일 관계 기관에 찾아와 이같은 근무자세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함으로써 드러났다.

또 9일 새벽1시께는 역시 남부경찰서 순찰차요원인 沈현보상경(21)이 구로구 구로3동 공단내 공원에서 소주를 마시던 李모씨(38·구로구 독산동318)등 2명에게 검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며 휴대한 권총을 들이대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沈상경의 지나친 검문자세로 李씨등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호소함에따라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이들의 행위가 말썽을 일으키자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盲人안마사가 칼든 도둑 잡아

▲15일 새벽2시반께 서울 종로구청진동231 세종안마시술소 1층 응접실에서 맹인안마사 宜상엽씨(30)가 물건을 훔치러 칼을 들고 침입한 金모군(17)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宜씨에 따르면, 이날 당직근무를 하던중 소파 뒤쪽에서 인기척이 나 다가갔더니 金군이 방석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것이 손에 감촉되어 잽싸게 金군의 칼든 손목을 덮쳤다는것.

宜씨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정상인 이상으로 청각과 촉각이 발달되어 정확히 칼든 손을 낚아 챘수 있었다고.

맥주홀서 人氣연예인出演 과대광고
손님이 "詐欺"고발

■운전사노린 안경 사기

▲택시운전사만을 골라 국산 선글라스를 독일제 마비츠 안경이라고 속여 팔아오던 사기범 2명이 두달만에 안경을 샀던 운전사에게 또 팔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18일 成春浩씨(25·주거부정)와 朴모군(19·경남울산시 옥교동153)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7월10일 서울남대문시장에서 4천원을 주고 국산선글라스를 산뒤 밤10시께 서대문로터리에서 서울4바1475호택시(운전사 이종석·31)를 잡아타고는 차안에서 『외항선장한테서 이 안경을 얻었는데 싯가가 13만원된다』며 말을 건네면서 운전사 李씨를 속여 『9만원만 내고 사라』고 하다가 李씨가 2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2만원을 받고팔았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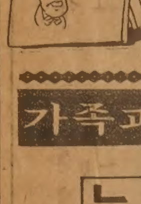
이들은 두달이 지난 지난17일밤 9시께 서울중구 퇴계로5가에서 우연히 李씨가 모는 택시를 멋모르고 타게됐던것. 같은 수법으로 가짜 안경을 또 팔려다 李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호적위조 병역 위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영등포구청세무2과 행정서기 朴南五씨(33)와 朴씨의 동생 正熙씨(21·영등포구도림1동117)등 2명을 주민등록법및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형제는 외할머니 張小兒씨(86)가 호적도 없이 살다가 지난80년3월6일 사망한 점을 이용, 마치 생존해 있는것처럼 취적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꾸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신규로 호적을 취득, 같은해 5월 正熙씨를 張씨의 양자로 입적시킨다음 군 입대대상자인 正熙씨가 군에 입대할 경우 양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에 군입영면제신청서를 제출, 지난해 6월 병무청으로부터 보충역 소집면제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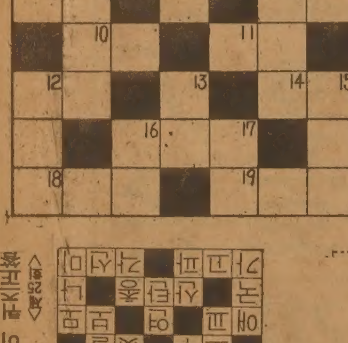
경찰조사결과 이들 형제는 正熙씨의 군입대가 면제되자 외할머니 張씨가 작년8월30일 사망한것으로 다시 허위신고까지 한것이 드러났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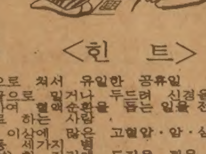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5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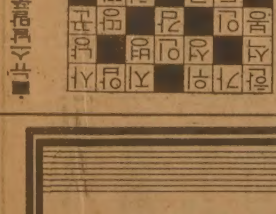
<힌 트>

■가로

1. 음력으로 쳐서 유일한 공휴일
3. 손 끝으로 밀거나 두드려 신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5. 40대 이상에 많은 고혈압·암·심장병등 세가지 병
7. 봉(封)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9. 범을 전문으로 잡는 사람
10. 야구에서 발이 빠르면…
11. 자녀중 살림 밑천에 비유함
12. 여자가 남에게 귀엽게 보이려고…
14. 보육원등서 종사하는 여자
16. 한꺼번에 여러발의 탄환이 나오는 총
18. 내 고향 남쪽 바다…
19. 여자의 다리 곡선미서 느끼는 아름다움

■세로

1. 어머니가 떡장수인 이조 선조때의 명필
2. 혹성의 주위를 운행하는 별
3. 몸에 지니고 있는 고질의 병
4. 짐승을 잡는 사람
6. 동사무소와 은행등에 신고한 도장
8. 사람이 다니게 만든 다리
9. 키 작은 사람을 비유한 말
12. 안익태씨가 작곡, 국민 모두가 부르는 노래
13. 날씨가 서늘해지면 집집마다 준비하는 연료
15. 불편
16. 산부인과에 가지 않아도…
17. 미혼의 청년



숨은그림 찾기

구성·장태산

에밀레종

신라시대 서른다섯번째되는 경덕왕은 아름답고 그윽한 소리가 울려퍼지는 종을 만들고 싶어했읍니다. 신라에서 종을 만드는데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솜씨를 가진 명종이란 사람에게 황동 2만근을 주어 자기 생전에 종을 만들라고 분부했으나 이상하게도 종은 번번이 깨어지고 말았읍니다. 끝내 경덕왕은 종의 완성을 보지못하고 숨을 거두시고 대를이은 혜공왕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시 종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그역시 뜻대로 되지않았읍니다.

한 노승이 하는 말이 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였읍니다. 그때 이번에는 온백성의 정성을 모두 다바치는 뜻으로 백성 모두에게 시주를 받아 종을 만들기로 하였읍니다.

<다음호에서>

■숨은 그림

슬리퍼 한짝, 운동 모자, 붓 한자루, 우산, 방석, 말머리, 사과한 알, 편지봉투, 낚시바늘, 물음표, 고추한 개, 다람쥐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삼우스튜디오

성인미술교실안내

—FREE WORK SHOP—

개강일시 : 10월6일(수요일)

수시접수

수	인체뎃상 (착의혹은누드)	오후7시~9시	이젤 화판제공
목	인체뎃상 (착의혹은누드)	오후7시~9시	이젤 화판제공
토	조소·조각 (MODELING OR CARVING	오전10시~ 오후2시	조각대 제공

●초심자를 위한 개인지도
●기성작가 참여 환영

문의처 : 537-7630(스튜디오)
536-1908(집) MR. 장

SAM WOO STUDIO
58 WADE AVE.
(Lansdown 써브웨이 북서쪽)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개미떼가 쳐들어 온다

서울시민들이 개미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가에 때 아닌 개미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단독주택·아파트할것 없이 개미들이 몰려와 음식물에 덤비고 잠자는 사람을 깨물기까지 하고 있다. 아무리 기를 쓰고 구제해도 개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개미떼가 집안에 이처럼 들끓어도 괜찮은 것인지. 피해 당사자들의 걱정은 태산같다.

단독주택·아파트 안방에 까지 침투 시달리는 시민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개미떼가 방안까지 들어와 극성을 부린다.

음식물에 덤비고 사람을 마구 깨물기도

■먹이에 수천마리 개미떼

어느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朴모씨는 잠자기 전 머리말에 두었던 쟁반에서 포도 한 알을 집어먹고 질겁을 했다.

입언저리에 무엇이 수물대는것 같이 느껴져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울로 달려가 봤더니 뭔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개미였다. 처음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잘 살펴보니 아주 작은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손에도 여러 마리 붙어 있었다.

급히 목욕탕으로 달려가 개미를 떨쳐버린 朴씨는 포도송이를 두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온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수백 마리의 개미떼가 포도송이 쟁반을 뒤덮고 있었다. 하얀 색깔의 쟁반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였다.

쟁반을 살짝 들어올려보니 쟁반밑 방바닥도 새까맸다. 수천 마리는 되는것 같았다.

그는 정신없이 개미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찍다가 감당할수가 없어 나중에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발로 밟기 시작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놈들은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워낙 작은 개미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 못해 포도송이에 붙어있던 개미들 8~9할은 잡을수가 있었다.

개미떼와 전쟁을 치르는데 근 30분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朴씨는 이마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아침운동을 잘했으나 회사에는 지각을 했다.

강남구 강변로지역 아파트로 이사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이후 朴씨는 이집이 개미떼에 뒤덮여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노이로제 상태가 되었다.

정말 개미는 많았다. 보통때는 잘 눈에 띄지 않으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주변엔 금새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들었다.

어디에 숨었다가 몰려나오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약방에서 살충제를 사다가 개미가 있음직한 구석구석에 뿌렸으나 개미떼는 사라지지 않았다.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었다. 찬장에 넣어둔 라면도 봉지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개미들은 극성을 부렸다.

개미들은 안가는 곳이 없었다. 빨랫줄 한가운데 음식을 매달아 두어도 어떻게 알았는지 개미들은 모여들었다. 냉장고가 아니면 음식을 둘 곳이 없었다.

朴씨집 식구들은 이사온후 개미잡는 일이 일과처럼 되었다. 식구들이 집을 빈 한가한 낮에 朴씨의 부인은 방과 마루에 오징어다리·설탕등 개미가 좋아하는 먹이를 뿌려둔 뒤 개미떼가 모이면 잡곤 했다.

수먹이를 발견한 개미는 동료들을 불러와 공동작업을 벌일 정도로 영악스럽다.

■아무리 잡아도 끝없어…

불교신자인 그는 살생을 싫어했지만 개미는 예외였다.

그러나 아무리 잡아도 끝이 없었다.

밤에는 애들을 깨물까봐 한밤중에 깨어나 불을 켜고 살피느라 잠을 설치곤 했다.

물론 잠자기 전에 살충제를 방 구석구석에 미리 뿌려둔다. 그런데도 개미는 기어나왔다.

『애들 귀구멍으로 들어가면 어쩌나…』

朴씨 부부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땅에 사는 개미가 콘크리트건물에 몰려들다니 이상한 노릇이 아닌가…』

콘크리트건물에도 습격, 라면봉지 뚫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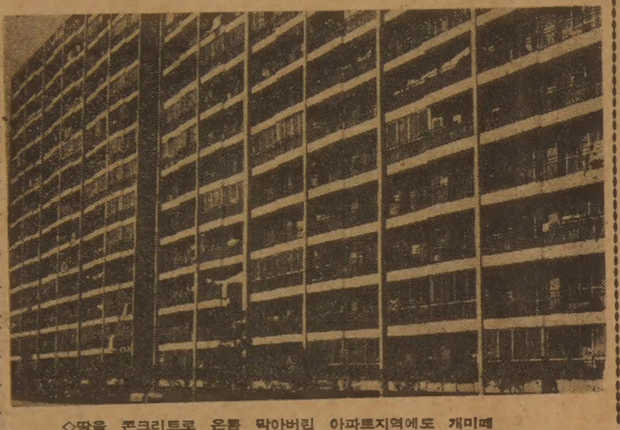
이웃에 물어보니 그 곳에도 개미들이 극성이라는 것이다.

朴씨의 머리에는 개미에 대한 생각이 떠날 때가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다. 쉬는 날은 개미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그 생태를 연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어느 일요일 방안에 설탕조각을 뿌려두고 개미떼가 모여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방안을 쏘다니던 개미 한마리가 설탕부스러기를 발견하고 그 한 덩이를 입에 물고 장롱밑으로 사라졌다.

한 20여분뒤 10여 마리의 개미떼가 나와 설탕을 물어갔고 한 시간쯤 지나서는 설탕을 물어 나르는 개미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땅을 콘크리트로 온통 막아버린 아파트지역에도 개미떼가 들끓고 있다.

피부병 일으키게하고 연탄가스도 스며들게
신통한 驅蟲劑 없는채 당국서도 束手無策

[illegible] 하얀 [illegible] 운전을 [illegible] 가려내는 [illegible] 없게 할수 있었다. [illegible] 는것을 보아 [illegible] 개미잡이 [illegible]고 그는 [illegible].

장롱을 옮겨보는 [illegible]을 벌였으나 개미집은 발견[illegible]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에 모여 있는 [illegible]까?』

■날개달린 솔개미떼 말썽

천장·방바닥 할것없이 온통 시멘트로된 아파트에 개미가 서식한다는게 도대체 이상한 노릇이었다.

그는 어느날 아파트주변 녹지대에서 아파트벽을 타고 한줄로 늘어서서 이동하는 개미떼를 발견했다. 옛날에 본 「마라분다」라는 영화가 연상되어 소름이 끼쳤다.

강변로일대 아파트지역 곳곳에 개미떼들이 말썽을 부린다는것을 朴씨는 알게 되었다. 한집에서 애써 개미퇴치에 열을 올려도 소용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와같은 개미떼의 극성은 서울 도처에서 말썽을 벌이고있다.

마포구망원동 단독주택에 사는 [illegible]모씨는 날개가 달린 솔개미떼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어린애들이 개미에 물린 자리를 긁어 피부병을 일으켰고 음식에 마구 덤벼 음식을 보관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관악구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金모씨도 왕개미·집개미떼가 수도없이 몰려들고 있다는것이다.

성북구정릉동 단독주택에 사는 徐모씨는 소파 침대위까지 기어들어 사람을 물기 때문에 피부연고제를 상비하고 있다 한다.

강동구풍납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張모씨는 귀한 손님이 찾아와 과일을 깎아 내놓았는데 개미떼가 몰려있는걸 미처 발견 못해 크게 망신을 당했다 한다.

밤에 자다가 따끔하게 물려 잠을 설치는데도 빈번하다는것. 피부가 약한 애들은 개미에 물린 자리를 긁어 상처가 나 병원까지 찾기도 했다 한다.

방안의 나무기둥과 세멘트 사이를 갉아 연탄가스가 스며든적도 있다 한다.

개미떼에 시달리는 집에서는 개미퇴치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개미가 나올만한곳에 살충제를 뿌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의 개미집에 석유를 뿌리기도한다. 붕산을 물에 타서 뿌리기도 하고.

단독주택에선 마당의 개미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물주변에 석유를 뿌려 막기도 했다.

어떤 집에선 방 가장자리에 고무줄을 놓어놓기도 했다. 개미가 고무냄새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험해봤으나 별효과가 없었다 한다.

또 방바닥 구석구석에 분말농약을 뿌리고 비닐장판으로 덮어두기도 했다.

그러나 개미를 완전히 퇴치할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엔 70여종

서울지역에 개미가 나오는 곳은 주로 변두리지역, 체장이 2㎜정도의 암갈색 집개미.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나다닌다는것이다.

약국에 가봐도 개미를 완전박멸할수 있는 신통한 구충제가 없었다.

또 내 집만 개미를 없앤다해도 얼마 안가 개미떼는 이웃에서 습격해 온다.

그러므로 개미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 전역을 방제하지 않는한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개미떼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지역이 더 심한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의 경우 집안보다는 마당에 더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미떼의 출현에 대해서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집집마다 개미떼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큰 문제로까진 아직 비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있지 않다. 개미떼의 가정침투에 대한 연구나 퇴치방법·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高麗大學校 곤충문제연구소의 尹一炳교수는 『우리나라에는 70여종의 개미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중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작은 집개미로 건물이나 인체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사는데는 먹을것이 있게 마련이므로 개미가 먹이를 찾아 모여드는데 최근 들어 집안에 개미가 많아진데 대한 특별한 연구는 아직 실시한적이 없다』고 尹교수는 밝혔다.

지금까지 개미의 피해로인해 큰 말썽이 된일은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진 별로 없었다.

다만 지난 62년 사라호태풍이 우리나라를 엄습했을때 慶北榮州지방에서 개미떼가 말썽을 부린적이 있었다.

그당시 태풍으로 榮州읍이 물에 잠겼다 빠진뒤 가옥들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개미떼가 수년동안이나 극성을 부렸었다 한다.

개미떼가 집안 깊숙이 파고들어 뜨거운 국그릇에 빠지는가 하면 밥그릇·국그릇 할것없이 마구덤벼 식사때 10여마리의 개미를 먹게되는것이 예사였다 한다.

잠자리까지 침입해서 어린이들을 깨물어 부스럼이 나게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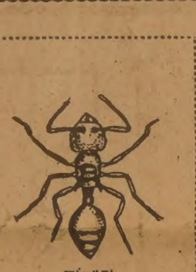
또 연탄온돌방바닥에 거미줄처럼 길을 내고 집을 지어 연탄가스를 스며들게해 연탄가스중독을 일으키게도 했다 한다.

아무리 살충제를 뿌려도 개미떼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그당시 榮州에 살던 6만여 주민들은 몇년간을 개미떼와 끈질긴 공방전을 벌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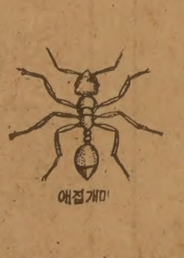
榮州의 경우 개미떼들이 몇년간 법석을 치고는 스스로 물러난것이지 결코 인력으로 퇴치한것이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개미떼를 퇴치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弘祚기자〉



집개미



애집개미

꼬리치레개미

개미란?

세계적으로 5천종 넘어
수m까지 집짓고 일개미는 쉬잖고 먹이날라
몸무게의 50배를 들기도

비록 몸은 작으나 개미란 곤충이 워낙 영악할뿐 아니라 숫적으로 엄청나게 많기때문이다. 실제로 개미는 조직적인 단체생활을 하는 영리한 곤충이다.

세계적으로 개미는 5천종이 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미집단은 대개 여왕개미·수캐미·일개미등으로 구분된다.

여왕개미는 한마리만 태어나 산란을 하고 수캐미는 생식기능만 한다.

일개미는 먹이를 물어날으는데 일부는 유충을 돌보기도하고 적을 막는 일도 한다.

종류에 따라 땅속 수㎝에서 수m까지 복잡한 통로로 얽혀지는 집을 짓고 수천마리 내지 수만마리가 집단을 이루고 산다.

자기 몸무게의 50배를 물수있는 일개미는 24시간 쉬지않고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

일개미가 먹이를 발견하면 동료들에게 이를 알려 줄줄이 몰려온다. 꽁무니로 진한 냄새의 물질을 뿌려 길을 잃는 법이 없다. 또 개미는 더듬이로 개미끼리 간단한 의사소통도 한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미가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개미가 얼마나 영악한 곤충이란것을 알수 있다.

진딧물이 많은 나무숲에서 개미가 작업하는 광경은 흔히 볼수가 있다.

그런데 개미는 진딧물이 나무진을 빨아먹고 꿀과같은 액체를 얻어먹고 그대신 이들이 약한 진딧물을 나무의 새순으로 옮겨준다. 진딧물은 절대 해치지않고 공존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개미도 있다 한다. 풀씨를 물어다 일정한 장소에 옮겨놓고 그 풀이 자라면 집으로 옮겨 놓는다는것.

또 나뭇잎을 잘게 썰어놓은뒤 버섯포자를 옮겨다놓고 버섯이 자라면 버섯은 먹이로 저장하고 포자는 옮겨 다시 버섯을 가꾸는 개미들이 있다 한다.

그런가하면 다른 종류의 개미집을 습격하여 유충을 물어와 그 유충이 개미로 부화되면 노예로삼아 부린는 개미들도 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꿀벌과 생활양식이 거의 같은 개미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곤충으로 생각해 왔을지언정 해충으로는 취급하지 않았었다.

흔히 개미는 이솝우화에서처럼 근면의 상징으로 취급되어왔다.

또 「개미가 집안에 끓으면 재산이 인다」하여 개미를 멀리하기는커녕 가까이 대해 오기도했다.

그러가하면 「개미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여 개미가 음식물에 빠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다.

심지어는 「개미 한말만 먹으면 쌀한섬을 한손으로 든다」고 하여 약용으로도 많이 쓰였다.

불개미가 기막힌 강장제라 하여 전국 곳곳에서 불개미가 마구잡이로 채취당하는 일도 있었다.

불개미가 이렇게 수난을 당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송충이의 천적이라하여 애써 번식시킨 일도 있었다.

아뭏든 우리나라에선 개미를 해로운 것으로 멀리하지 않았었던것만은 사실이다.

또 실질적으로 개미로 인해 크게 화를 입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개미에 대해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처럼 개미떼들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아파트 지역까지 파고들어 말썽을 부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개미떼들이 병균을 옮기는 것은 아닐까? 또 옷가지나 나무로 된 가구들을 갉는것은 아닐까?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 것인지….

개미떼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해답은 아무데서도 찾아볼수가 없다.

보건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별의별 추측을 다하고 있다.

주민들의 추측이란 이런 것들이다.

원래 개미는 땅속에 집을 짓고 살거나 들에서 사는 곤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미들의 서식처인 들판에 사람들이 집을 빽빽이 지었으니 그곳에 살던 개미들이 생활터전을 빼앗긴 것이다.

그래서 집안으로 몰려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아파트지역의 경우 집이며 길이 온통 시멘트로 막혔으니 개미들이 갈곳은 뻔하지 않은가.

땅이 별로없는 아파트지역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보다 개미들이 더 극성인걸 보면 이러한 추측은 맞는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답답하기만 한것은 개미의 피해를 보고있는 당사자들뿐이다.

개미떼가 이처럼 집안에 들끓어도 괜찮은것인지 관계당국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것같다.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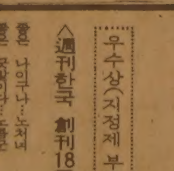
구독신청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지금 웃는중



최우수상(지정제 부문)

〈공처가의 결혼생활〉

결혼은 인생의 무기징역
마누라는 감방의 간수

김 갑 철 (土月文友會·전북완주군 부양읍 성은리1구)

우수상(지정제 부문)

〈週刊한국 創刊18주년〉

좋은 나이구나…노처녀
좋은 꽃밭이다…노총각

崔大鉉 (한국나서회·서울마포구 대흥동20의23)

우수상(지정제 부문)

〈진짜 애처가〉

여보! 당신 늘 살림하기도 힘드는데 얘기 낳는 사람은 따로 하나 더 얻을까?

이 경 (작사가)

—어느 공처가—

하도사 (한국나서회·한성표)

가 작(지정제 부문)

〈심사위원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내 낙서가 당선되면 주간한국 창간 18주년 祝!
내 낙서가 떨어지면 주간한국 창간 그냥 18!

—욕대장—

피카소학소 (서울성동구화양동16 7의1 민속화실)

가 작(자유제 부문)

〈차이점〉

일본은 진주만 대기습
한국은 8회말 대공습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감태공 (한국나서회·釜山)

가 작(자유제 부문)

〈드림 만점〉

택시 합승해서
하이웨이 달릴 때

—운수 수입 택시기사—

허영민 (전국나서문화회)

입 선(지정제 부문)

〈주간한국 창간 18주년 연륜속의 물가〉

	창간당시	현재
주간한국구독료	5원	5백원
시내버스요금	1원	1백10원
쌀 한가마	2천90원	6만8천원
대학졸업자 초봉	1만2백원	24만원
서민주택전세방	9천원	2백50만원

黃大[illegible] (한국나서회장위하대행)

입선(지정제 부문)

〈귀성열차〉

타기전에 극성열차
타고나면 귀향열차

石[illegible] ([illegible])

입선(지정제 부문)

〈마누라란?〉

바로 접니다.

태준씨의 부인 [illegible] (서울 강남구 반포동902의3)

입선(지정제 부문)

〈한국인의 기호숫자〉

18

입선(자유제 부문)

〈설치는 민족〉

서양에는 히피족
동양에는 낙서족

—게르만족 일동—

가 작(지정제 부문)

〈우리마누라 몸뚱이는 신비한 자동글자 기계〉

생활비 떨어진 날 저녁엔 一字되고 월급봉투 갖다주는 날 저녁엔 八字가 된다.

崔東淵 (무소속·釜山동구범일동)

가 작(지정제 부문)

〈마누라〉

있으면 무섭고 없으면 아쉽고.

〈우리학교에서 S대학 가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사실 그렇다 그쪽으로 가는 버스는 항상 초만원이라서.

—어느 고교생—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 LL COME TO ME.

조금전까지만 해도 알았던 전화번호를 막상 누가 물어보니까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다. 이럴때「곧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에 적절한 영어표현으로는 It'll come to me.라고 한다.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man we met at the restaurant?(식당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세요?)라고 물어왔을때「잠깐생각해보죠。곧 기억이 날 겁니다」고 대답할때는 Just a minute. It'll come to me. 하면된다.

Weren't you going to tell me something?(나한테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지않았소?)라고 했을때「네, 그랬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깜빡 잊었읍니다。잠깐만 지나면 생각이 떠오를겁니다」라고 할때도 Yes, but I've forgotten what it was. Just a minute, it'll come to me. 이같이 말하면 된다。반대로 상대방에게서 I forget.(잊어 버렸읍니다)라며 기억을 못해낼때는「곧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It'll come to you. 하면된다.

기억이 안나던 것이 지금 생각이 떠오를때 It's coming back to me.(생각이 다시 떠올라요) 라고 표현한다。또한 한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다른 생각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릴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무슨 말까지했더라?」에 해당하는 말로는 Where was I? 라고 한다。강의가 옆으로 흘러가 지금 어디를 강의하고 있는지를 깜빡잊은 교수가「지금 어디할 차례죠?」라고 할때는 Where are we now? 이같이 말한다.

A :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man we met at the restaurant?
B : Which man?
A : The man with red hair.
B : Oh, him. No, I don't remember his name.
A : It was a common name. Started with a K, I think.
B : Oh, yes. Just a minute, it'll come to me.
A : 그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의어름을 기억하세요?
B : 어떤 사람말입니까?
A : 붉은 머리를 가졌던 사람말입니다.
B : 아, 그 사람이요。하지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군요.
A : 평범한 이름이었는데요。K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B :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A : What's the license number of your car?
B : Oh, dear. Let me think a minute.
A : You just told me yesterday.
B : I know, but it's slipped my mind.
A : It starts with a zero, doesn't it?
B : Just a minute. It'll come to me.
A : 댁의 차번호가 몇번이시더라?
B : 아, 잠깐 생각해봅시다.
A : 어제 제게 말씀하셨는데.
B : 알고있읍니다만깜빡잊었읍니다.
A : 0으로 시작되지요?
B : 잠깐만 기다려 봐요。생각날겁니다.

It slipped my mind : 깜박 잊다。reminds A of B : A에게 B를 생각나게하다。Ex. He reminds me of his grandfather. 그를보면 그의 할아버지 생각이난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 제공】

A : 누가 채용했지요?
B : 존즈 부인일겁니다.
A : 왜 모르고 계세요?
B : 누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receipt : 영수증. refund : 환불. I'm with BCM : 「…에 근무하고있다」고 할때 I'm with~혹은 I work at~등이 있다。overseas : 해외의。hire : 고용하다。department : 부 「디파트먼트」라고 t를 파열시키지 않고「디팔-먼」으로 발음한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 제공】

해 외 걸 작 만 화

"Don't you wish you could make her come across that easy, Mister?"

「빨리 건너왔으면 싶지요?」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4

지난줄거리

가령은 할머니를 등쳐 먹는 부잣집 여편네는 여러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다. 친구의 증언을 들어도,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출판의 끈질긴 노력으로 할머니 한 분의 놀라운 증언을 얻어냈다. 즉시 정보를 수집해 애들을 풀었다. 대낮의 정사를 즐긴 현장까지 덮쳐 임사장 마누라를 잡았지만 아주 담담하게 나온다.

임사장 마누라는 주뼛거리는 기색 없이 여관 문을 나섰다. 대낮이라 오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표독스러울이만큼 냉정했다.

여자의 변신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도 모른다. 남편이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데도 그녀는 구차하게 매달리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아주 당당하게 장소를 옮겨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타요.』

그녀는 명령하듯 택시 문을 열고 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어서 타요.』

나는 이 여자의 냉소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 보아두고 싶었다. 택시안으로 빨려들어가듯 들어갔다.

『L호텔로 갑시다.』

그녀는 냉랭하게 말했다. 택시 기사가 뒤를 흘낏 쳐다보고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여관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온 예송이와의 관계를 무한한 상상력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다.

L호텔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은채 갔다.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선 도대체 감정이라곤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여자가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정사현장을 덮쳤는데도 저렇게 표정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정도 배짱이라면 불쌍한 할머니 돈 이백만원을 삼키고도 시치미를 뚝 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호텔방 열쇠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눈짓으로 나를 불렀다.

『타요.』

아까와 똑같은 음성이었다.

『조여사, 어쩌자는 거요?』

내가 반문하듯 물었지만 그녀는 냉랑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문을 잠그었다. 그리고 여전한 그 표정으로 물었다.

『맥주 좀 하겠어요?』

『길게 얘기하자는 겁니까?』

『난 어차피 오래 살 여자는 아녜요. 그러니 할 얘기나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네 남편이 어떤 사내라는 것도 알아요.』

『좋아요. 맥주 마셔 봅시다.』

조여사가 맥주를 시키고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남편한테 얼마 받았죠?』

담담한 목소리였다.

『액수를 밝힐 수는 없소.』

『난 액수도 대충 알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두배를 줄께요. 그게 훨씬 현명할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돈 때문에 나선 거 아녜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건은 없읍니까?』

『남편 뒤를 캐주세요. 알만한 건 다 알고 있지만….』

자조적인 말투였다. 조여사의 남편인 임사장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았다. 나는 당분간 말려들어가는 척을 하기로 했다.

『조여사, 남편은 퍽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읍니다.』

『겉으론 그렇겠죠. 그러나 역으로 뒤를 밟아보면 알거예요. 차마 내 입으론 떨려서 말이 안나와요.』

『여자관계 말인가요?』

『그래요. 내 피를 말려놓고 나와 이혼한 뒤 젊은 계집앨 들어앉히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불쌍한 여자를 그렇게 피를 말리는게 『아닙니다. 난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내 한 목숨 끊어버리면 그만예요. 그러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그러니 날 도와 주세요. 부탁예요.』

돌아선 그녀의 얼굴엔 표독스러울 만큼 냉랭하던 냉소가 사라지고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도 얘기 좀 합시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억울한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안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가 마를 일이지요. 사람을 사서 미행시키는걸 아는데, 여자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그 남자도 당신처럼 나를 미행하던 사람에요. 일년도 넘게 미행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못견딜것 같아서 만났죠. 대신 두배로 줄테니 남편을 조사해 달라고요. 남편은 첩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송이하구요. 첩살림 뿐이 아녜요. 내가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나도 못참고 저질렀어요. 예편네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나서는 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잘못됐어요. 나도 알아요. 그건 그렇고…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부탁 들어주시는 거죠?』

조여사는 차라리 당당했다.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조여사, 당신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난 돈이 필요한 놈이 아닙니다. 조여사,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찾은 거요. 당신을 만나기 전엔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두지 않을 생각였어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아요. 따질 건 따지고 가릴 건 가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돈이 싫다면…까놓고 말해요. 나도 이 호텔까지 올 때는 모든 걸 각오한 여자예요. 내 몸이 필요해요?』

조여사는 악발친 여자 같았다. 입기웅변으로 자신의 부정을 바아보려는 데도갈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갈잖게 보지 마십쇼.』

『그럼 전 원하세요.』

정사현장을 덮쳤는데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난 당신 남편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뒤를 캐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오.』

『그럼 누구예요? 뭣 때문에 날 찾았죠?』

『바로 그 의문을 당신이 풀어야 됩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가 남편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더 견디는 모양이었다.

『좋아요. 내가 묻는대로 말 해봐요. 거짓없이 말하는 게 우리 서로 편할겁니다.』

『감출것도 거짓말 할것도없어요.』

『Y동 아파트에 살던 할머니를 아세요.』

『알아요.』

『재판까지 해서 백만원, 이자주기로 하고 백만원, 도합 이백만원 빼앗은 기억을 하세요?』

『…。』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예요.』

『그럴 수가 있읍니까? 난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려요. 조여사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어요. 내말 알아요? 왜 당신을 추적했는지.』

나는 갑자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가엾은 여자이긴 했지만 할머니의 돈을 그런 식으로 빼앗을수 있다는건 인간의 짓이라고 할수없었다.

『그러나 내 얘길 들어봐요.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한 챙피를 생각하면 대한 것이라도 빼앗고 싶었어요. 말없이 이사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그렇게 왔지만 찾아가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변명같지만 사실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앞에서 도둑년이니 사기꾼이니 떠들며 동네 사람들 죄 모였는데 도박꾼이니 서방질하는 걸 봤다느니 하며 악을 썼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어떻게 났겠는가를. 남편이 그때부터 나를 족치는 거예요. 그 늙은이가 우리집에 파출부처럼 들락거렸으니까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게 남편 주장예요. 나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동네에 더 살 수도 없었고.』

『그건 알아요. 그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라는 걸, 오죽하면 그랬을까도 생각했죠. 그러나 재판까지 해서 백만원을 빼앗는 건 아무리 억울해도 지나친 거 아녜요?』

할머니가 충분히 그럴만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상황을 들어보니 조여사도 악에 받칠만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벌어진게 이꼴예요. 남편이 그때부터 사람을 사서 나를 미행했고…나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 늙은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꼴이 됐겠어요?』

조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조여사 말을 들으면 할머니가 좀 지나쳤다는 걸 부정할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그게 전재산예요. 새마을 사업장에 나가 몇년간 번 전부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몇식구를 살게 해주라고 하는 건 조여사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인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백만원과 거기에 대한 후한 이자를 지불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추적한 걸 없었던걸로 할수 있습니다.』

조여사는 피로운 표정이었다.

『내가 이 신세가 된 건 어디 가서 보상 받나요?』

애원 가득한 물음이었다.

『원한다면 내가 해결해 보겠읍니다.』

『어떻게요?』

『계속 이 곡예를 할 겁니까?』

『청산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 사내가 놓아주질 않아요. 돈도 많이 줬어요. 계속 요구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동안 침묵을 지켰다.

『우선 순서대로 합시다. 그 할머니가 밉든 곱든 돈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사내는 내가 해결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남편 되시는 분 문제는 전적으로 두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여사는 대답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하나씩 풀어 나가죠.』

『그래요. 나도 견딜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아요. 언제든 일이 커지면 죽어버리겠다는 생각 뿐였어요.』

『가정문제라면 조여사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면 해결되겠죠. 그 사내 문제라면 제게 맡겨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통 거머리가 아녜요. 막판엔 나까지 물고 죽을 사내예요.』

『제 솜씨가 좀 있읍니다. 믿게 해 드리기 위해 좀 보여 드리겠읍니다.』

나는 표창을 빼들고 돌아섰다. 나무 옷걸이에 열개가 정확하게 꽂혀졌다.

『좋아요. 믿어 보겠어요.』

『믿어도 될 겁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표 석장을 내놓았다.

『이걸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건 그 사내의 연락처와 주소예요.』

나는 사내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놓고 수표는 도로 내놓았다.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읍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속이 아프더라도 할머니, 얼마 살지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돈을 주세요. 수표 말고 현금으로 말입니다. 조여사의 억울한 사연은 묻어 두십시다.』

『그러죠.』

조여사는 풀이 꺾여 이렇게 말했다.

『나를 믿어 주십시오. 그 사내 문제는 꼭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그 사낸 독려배예요. 부하도 많고….』

『그럴 줄 알았지요. 애초 그 사내는 남편한테 그걸 부탁받는 순간부터 한건을 하게 되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행한다는 걸 일부터 알려준 걸 겁니다. 그런 친구일수록 해결은 아주 깨끗해 집니다. 만약 그 사내가 연락해 오면 장총찬이란 애가 외가쪽으로 동생이라고만 하세요.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 보지요.』

벌로 자신없는 목소리였다.

『곧 알게 됩니다. 나를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믿겠어요. 먼저 나가겠어요. 늦었으니까요.』

『그러세요. 전 조금 있다 나가겠읍니다.』

『내일, 그 늙은이를 찾아갈께요.』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그녀는 내가 내미는 전화 번호를 받아넣고 나갔다.

일이 우습게 뒤틀려 버렸지만 내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뜸 배운 기분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모지락스럽게 다루어도 한이 없을 정도지만 어쩌지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다. 죽음이란 것까지 각오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고 그렇게 담대했을 것같았다. 소갈머리 없는 사내들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15분쯤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퍼 늘어 있었다. 한여름의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한낮은 더위의 잔해가 붙어 있었다.

애들에게 사내 녀석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오도록 했다. 애들은 그 밤안에 사내의 신상명세를 알아왔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압니까?

『자잘한 녀석이군. 두더지 밑에서 깝신대던 녀석이잖아?』

사내의 별명은 곰털이었고 두더지 사단에서 별로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다. 술집에 팔려다닐 정도로 소문은 나있었지만 제대로 주먹일을 한 적은 없었다.

『두더지 있는 데부터 알아놔라.』

『한꺼번에 손볼 생각입니까?』

『곰털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더지가 있어야 돼.』

『알았어요. 아침에 연락할께요.』

『붙지는 마라. 있는 데만 알아봐. 내가 조용히 해결할 일이 있어서』

『그래. 너희들도 빠져라. 얼씬대다가 괜히 뒤지지도 몰라.』

『형 이름 듣고 안뛰고 배기겠어요.』

애들은 내가 일선에 나서지 않는게 불만이었다. 은근히 내가 나서서 어깨를 펴주기를 고대하는 눈초리였다. 그러나 내게 이런 무예의 길을 터준 무공스님과 무초스님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주먹공사판에 뛰어들어 보았자 내 신세만 고달파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의리있는 사내들을 세계는 내가 뛰어들지 않더라도 망볼 수 있는 것이었다.

두더지라는 인물이라면 나와 부딪치는 걸 충분히 회피할 인물이었다. 그러나 곰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차피 두더지의 힘이 적절해졌다.

이튿날 오후에 나는 곰털을 차에 태웠다.

『이봐. 나를 곱게 놔두는게 오래 사는 길이다. 내가 하늘높은 줄을 몰라서 그러겠지. 이봐,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거냐?』

곰털은 영문 모른채 끌려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갈을 쳐댔다.

『두더지 앞에 가서 얘기합시다. 곰털 형님 유명한 거야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 있읍니까? 말씀은 이따가 하시고 조용히 가시시다.』

나는 이런 식으로 고분 고분 하기만 했다. 곰털은 기가 살아서 내 어깨를 쳐가며 주먹이 얼마나 세며 깡치가 얼마나 센지를 떠벌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왜 갑이 가자는 것인지 하필 두더지 형님한테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지만 나를 따라온 애들을 두명이 옆에 붙어 있어서 입으로만 큰소리를 쳤다.

두더지는 내 얼굴을 보더니 대번에 낯빛이 변했다. 더구나 곰털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았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갑자기 무슨 일야? 전 뭐야?』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두더지는 내게 큰 빚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빚을 받지 않았었다. 어차피 주먹공사판을 떠날 마당이었기에 최사한 복수극은 포기했었다.

『얘한테 내 얘길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 누나를 괴롭혔다는 걸 어제사 알았다. 우리 외사촌 누나를 단 한번 눈만 껌뻑하고 쳐다봐도 이걸로 해결하겠다는 걸 네가 말좀 해줘라. 내가 장총찬이란 것도.』

나는 표창을 빼서 곰털의 구두코를 정확하게 찍었다. 곰털이 부르르 떨었다.

『곰털!』

『옛!』

『조여사가 내 누나다. 넌 없애려다가 딱 한번 참기로 했다. 난 두번까지 참는 놈이 아니다.』

『알았읍니다.』

두더지가 그 자리에서 매번렸다. 곰털은 즉석에서 펄썩 무릎을 꿇었다.

『두더지, 고맙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걸로 내 빚을 갚은걸로 하자.』

『고맙네. 정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채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마냥 신선하기만 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r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홍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전화 :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 구함(남)
남자학생으로 Part Time원하시는분 환영
900 Queen St. E.(at Logan Ave.)

Shoe Repair Helper
Shoe Repair에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263 Morningside Ave. at Kingston Rd.

Hamburger식당 Carhier구함 착실하고 영어 잘하는 여자분 7:00a.m.–3:00p.m.까지 Take out.
전화 : 274–7010 Mr. 유.

성실한 Full Time 여자 캐시어 구함
제랄드 & 콕스웰
전화 : 465–6885

식품점에서 일하실 건장한 남자분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1054(제일식품)

인쇄 기술자 구함.
Ambassador Printing
전화 : 656–2050 (마리오)

경험있는 남·녀 학생 Store Help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625–1620

일본음식 겸 중국음식 요리사 구함(미시사가)
전화 : 274–7010 Mr. 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파타임)구함.
전화 : 977–5743

구직

Store Manager로 일하기 원함.
다년간의 경험 있음.
전화 : 533–2909(Mr. 오)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칩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입주하셔서 8살된 여자아이 보아주시고
가사일 좀 살펴주실분 구함.
전화 : 624–5897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합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84–3031

매매

Unique Country Store in the Hockley Valley
최근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알려진,
토론토에서 45분 거리의 휴양지.
주유소를 포함한 마켓, 그리고 큰 저택, 4개의 건물,
수영장 포함. 급매코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함.
전화 : 519–822–8530 Betty or Lorne Patterson.
519–824–1123 Canada Trust Realtor.

Becker Store for Sale
1878 Weston Rd.(토렌스)
전화 : 241–3070(Mr. 김)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Fast food business for Sale
토론토 중심가에 큰 Mall안에 있음. 윗층으로 120여개의 점포와 640여 아파트와 그리고 사무실들이 있음.
아스킹 $25,000 주매상 : $1,800~$2,000(Short hours)
전화 : 979–3224(Andy)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에토비콕 플라자
3층벽돌 가게, 2층은 사무실로 쓰임.
161 Foot Deep lot. 파킹장 있음.
아스킹 : $265,000
전화: 763–5555 도리스·부르다
Cholkan Real Estate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Building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넓이: 2500 sq.ft. Open한지 10개월 정도됨
윗 Building에 간호학교가 있음. 갑작스런 형편으로 발전이 대단히 기대되는 곳이나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 함. 아스킹: $20,000+스탁(네고.)
단, 모두 Cash 요구. 1–525–2928 (Mr. 엄)

건물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000 별도 입구된 2개의 2Bed Rm.Apts.
Mortgage는 주인이 인수함.
Sincere Realty Inc.
R: Better Call Before 9:00a.m. 444–0674
B: 497–8900

Italian Fish Business for Sale, Eglinton & Keele
Good Condition. 10 years Lease. Rent : $280/M.
653–1725(Tues.–Fri.)Vito 242–3818(월)

성능좋은 중고 피아노 팝니다.
(아파트싸이즈)
전화 : 665–8233, 636–1430

Aurora—Variety Store, Apartment.
Variety Store.(800 sq.ft.) Basement stock Rm.(800 sq.ft.)
Apartment 4 Rms. + Bath Rm.
Asking price : $165,000 + all new equipment $20,000.
Phone. 889–8654 Mr. Jones.
W. R. Case Realty Ltd.

Basiness & Building for Sale
Grocery Market.
Hwy35번과 Hwy503번이 만나는 지점.
Toronto에서 동북쪽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장소
년매상 : $700,000 Good Mortgage.
전화 : 705–454–3411(Jim)

영어쓰는 지역의 Super Market 팝니다.(몬트리올)
좋은 Lease와 낮은 Rent. 주매상: $16,000이상
윗층 Apt.도 Rent 가능함. 전화 : 514–481–3291 (Mr. 강)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Lambton Gift & Variety 763–7317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렌트 : $950
주매상 : 6,500. 리스 : 3년+5년(에토비콕지역)
전화 : 621–205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Grocery & Variety Store매매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69–3708(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특별한 기회"
발전 가능성이 큰 이윤높은 소매업자가 자본이 있고 능력있는 투자가를 찾음.
현재의 연간 1백만달러 매상고를 두배로 늘릴 수 있음.
★회답처 : C.H. Eaton Asso.
1166 Bay St. #304
Tor. Ont.
M5S 2X8

Convenience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코저함. 주매상 $3,500–$4,000. Video 머신에서 주 300불 수입. 1–623–7000 Mr. 박

Restaurant Tavern for Sale. with property
(Dufferin & Steeles area)
전화 : 661–7767(크리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완전수리. 완전시설 갖춤.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656–0456

사무실렌트

사무실렌트(외환은행 3층)
블루아의 중심지 ★면적 : 890 sq.ft.
전화 : 535–800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Ossington Subway 근처〉
2층 one bed Rm. 유지비포함 $350/M.
지하실 유지비포함 $150/M. 전화 : 531–3656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